

제 2017-083호

사회적경제 기업 자금수요조사를 통한 사회적금융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7. 12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귀하

본 보고서를 「사회적경제 기업 자금수요조사를 통한 사회적금융 발전방안 수립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년 12 월

과업수탁기관 : 한국사회혁신금융(주)

연구책임 : 이상진(한국사회혁신금융(주) 대표이사)

연 구 원 : 변준재(한국사회혁신금융(주) 팀장)

손영지(한국사회혁신금융(주) 팀장)

이소영(한국사회혁신금융(주) 매니저)

윤현조(인덕회계법인 이사, 공인회계사)

문보경(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김동언(사회투자지원재단 책임연구원)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3. 연구 방법론	5

제2장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수요 분석	7
---------------------------	---

1. 분석방법	8
2. 자금수요 기초데이터	9
1) 자금수요 분포	9
2) 자금수요와 재무현황	10
3) 업종별 자금수요	12
3. 서울시 자금수요 추정(조사시점기준)	15
1) 기업당 평균 자금수요금액(P) 추정	15
2) 업종별 자금필요 기업수 및 총 수요금액 추정결과	21
4. 서울시 자금수요 예측(향후 5년)	22
1) 주요 가정	22
2) 자금수요 예측 결과	26
3) 자금수요 예측 분석	27

제3장 자금공급 및 매칭 분석	31
------------------------	----

1. 자금공급 현황 및 계획	32
1) 공적자금	32

2) 지자체기금	38
3) 민간기금	42
2. 서울시 자금공급 추정 및 예측(향후 5년)	56
1) 주요 가정	56
2) 자금공급 예측 결과	57
3. 서울시 자금수요·공급 매칭 분석	59
1) 부족자금 분석	59
2) 자금수요자 한계점	60
3) 자금공급자 한계점	62

제4장 서울시 사회적금융관련 선행연구분석 64

1. 서울시 사회적금융 관련 선행연구 분석	65
1) 사회적금융 이해관계자그룹의 문제의식	65
2) 이해관계자그룹별 사회적금융 활성화 과제	68
2. 서울시 사회적금융 관련 정책 분석	72
1) 정부정책과 서울시 과제 비교 분석	72
2)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개선사항	74

제5장 서울시 사회적금융 발전과제 76

1.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방안	78
1) 금융포탈 구축 지원	84
2) 금융 상담창구 운영 지원	86
3) 금융 교육 지원	87
4) 금융 컨설팅 지원	89
2. 사회적 금융기관의 투·융자 지원방안	92
1) 기업평가체계 공동연구	93
2)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과 연계	95
3) 이익공유형 융자사업 추진	96

4) 민간기금 육성지원	97
참고문헌	100
별첨	102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연구 방법론
-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7년 11월 15일 발표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추진방향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사회적경제 지원계정을 신설하여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공급 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규모확대 및 지원 사후관리체계화 방침을 밝히고 있음. 이 밖에도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지원 한도 확대, 정책자금내 총액 대출목표 신설을 통한 정책자금 공급확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 신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투자펀드 확대운용, 사회성과 보상사업 확대(사회성과 연계채권 활용),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 투자기반 조성강화 등 다양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
- 17년 12월 25일 2018년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관련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 또한 800억원 규모로 사회투자기금을 확대하고 사회투자기금 10억원 출자를 포함한 30억원 규모의 임팩트 투자조합을 운용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선순환적 투자생태계를 조성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정부 및 지자체의 사회적금융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확대 방침이 확고한 가운데, 확대되는 각종 정책기금들이 보다 효과적·전략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계의 자금 수요도 및 투자 수용력에 대한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과 예측 분석이 필요함
- 또한 몇 차례 발표된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에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단계별 금융조달수요는 높으나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고 체계적 금융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회적경제계의 자금 수요 및 공급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살피고 자금 수요·공급 사이 매칭의 한계점을 파악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사회적금융 발전과제 및 해결방안을 도출해야함

2) 연구의 목적

-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파악 및 예측분석과 자금공급현황 및 계획조사를 통해서 사회적금융 현황을 파악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사회적금융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수요·공급 매칭을 분석하여 수요·공급 상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금융의 주체별 발전전략 및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 주요 내용

- 자금 수요와 공급 분석
 - 자금 수요 현황 및 예측
 - 자금 공급 현황 및 예측
 - 자금 수요 및 공급 매칭
- 선행 연구 및 정책 분석
 - 사회적금융 이해관계자 분석
 - 정부정책과 서울시 과제 비교 분석
 - 서울시 사회적금융 활성화 과제 정리
- 사회적금융 발전방안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지원방안
 - 자금조달 포탈 구축 및 상담
 - 재무 교육 및 컨설팅 지원체계 마련
 - 사회적 금융기관의 투·융자 지원방안
 - 기업평가체계 공동연구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과 연계

- 이익공유형 융자사업 추진
- 민간기금 인큐베이팅을 통한 관계금융 강화

○ 추진 방안

- 사회적금융 허브 운영
- 상세 추진계획

2) 과업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2017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 내용적 범위

-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금수요를 조사하기 위한 방법 정의
- 선행연구분석을 통한 서울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수요 현황 파악 및 추정
- 문헌분석을 통한 서울 사회적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석
- 정책연구, 기업분석을 통한 자금수요예측모형 개발
- 수요예측모형 개발을 통한 향후 5개년 자금수요 변화 예측 및 정책변화에 따른 기업 그룹별 자금수요 변화의 시나리오별 예측
-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발표 자료들을 토대로 향후 자금 공급계획 파악 및 상호 협업방안 조사
- 민간기금 활성화, 사투기금 개선 방안 등 사회적금융 발전과제 수립

3. 연구 방법론

1) 자금수요조사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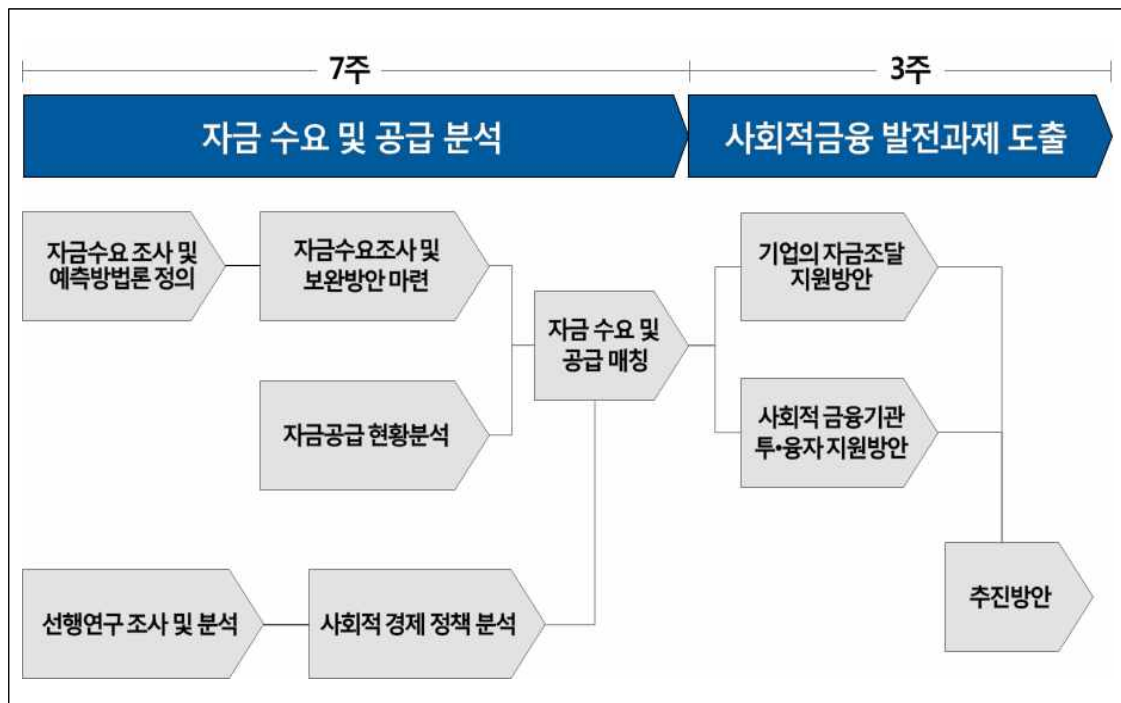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 방법 및 일정

○ 설문조사 및 문헌 연구

- 당사자협의회, 중간지원조직 등과의 협업을 통한 표적집단면접, 설문조사, 심층면접 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시도했으나 응답률 저조로 인해 선행연구 분석으로 대체함
-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수요조사 및 정책자금 평가연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관련자료, 사회적경제기업 연구보고서·논문, 정부 및 지자체, 중간지원기관들의 발표자료 등을 수집·분석
- 한국 및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정책의 전체 열개 파악
- 산업 및 기업별 특성, 자금수요 현황 파악 및 추정

2) 수요예측모형 개발방법

○ 거시적 변수 정의

- 서울시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신용보증기금, 모태펀드, 신협중앙회 등 사회적 금융기관들의 최근 계획, 중소기업자금 운영계획 등을 토대로 자금공급의 향후 변화 추정
- 한국은행 산업통계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정의

○ 사회적경제 자금수요 추정 및 예측

- 선행연구의 자금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수요를 추정하고 자금목적 등에 따라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

3) 사회적금융 발전방안 수립방법

○ 문헌 연구

- 서울시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경기도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운영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 등 사회적 금융에 대한 보고서 및 논문을 수집·분석
- 지역공동체기금을 비롯하여 사회적 경제 업종/조직/성과/지역 전략 개발 관련 다양한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한국사회투자지원재단의 연구 성과 분석

○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조사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과 같은 정책금융, 신협 등의 상호금융기관, 민간 사회적 금융기관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여 향후 자금 공급계획 파악 및 상호 협업방안 조사
- 민간 주도의 기금 조성을 통한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역할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언

제2장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수요 분석

1. 분석방법
 2. 자금수요 기초 데이터
 3. 서울시 자금수요 추정(조사시점 기준)
 4. 서울시 자금수요 예측(향후 5년)
-

제2장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수요 분석

1. 분석방법

○ 자금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요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나 응답률이 미미하여, 2016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업 협동화 사업모델 조사발굴 연구(사회적경제지역화연구소)”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NICE평가정보에서 입수한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데이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년 경영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자금수요 예측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 자금수요의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 분석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2-1. 자금수요 분석데이터 및 분석방법

구분	내용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수요자료 입수 및 분석	경기도의 사회적경제기업 2,336개에 대한 조직유형, 법인형태, 업종, 고용현황, 재무현황 등의 기본현황과 자금조달 현황, 자금수요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자료를 분석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 및 조직정보 정리	자금수요와 조직별 정보를 분석한 결과 재무규모와 자금수요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파악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정보 입수 및 정리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124개에 대한 재무정보를 입수(총자산, 매출 등)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요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 도출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중 자금수요가 있는 조직들의 업종별 조직 1개당 평균 총자산, 매출규모에 대비하여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조직 1개당 자금수요를 업종별로 도출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업종별 조직수의 비율, 자금수요가 있는 조직수의 비율을 서울시에도 적용하여, 3,708개(2017.8월기준)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총 자금수요를 도출 - 향후 자금수요 예측의 경우, 2016년 조사시점의 자금수요에 업종별 2년간 평균성장률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상대적 성장률을 보정하여 향후 5년의 수요금액을 산출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관련 선행 연구에서 실시된 실태조사는 데이터 클리닝, 전화조사원을 통한 사업체 기반정보 확인 및 생멸률 조사를 통해 조사기반을 정비한 후, 전문조사원을 통한 인터뷰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신뢰도가 높은 자료임
 - 데이터클리닝 및 전화조사 : 2016.9.12.~9.29
 - 공공기관 등록 데이터를 온라인 매칭 조사를 통해 데이터 클리닝 작업 실시
 - 사업체 기본정보 확인 작업 실시 및 조사여부 파악, 생멸률 조사
 - 실태조사 : 2016.10.5.~10.31
 - 전화조사를 통해 파악된 사업체에 전문조사원을 파견하여 현장 인터뷰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전체 대상업체 2,336개소 가운데 1,696개소 (72.6%)가 현재 운영 중에 있었으며, 조직유형, 법인형태, 업종, 고용현황, 재무현황 등의 기본현황과 자금조달 현황, 자금수요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기업 가운데 향후 1년 이내에 외부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 624개소의 자금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근거로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를 산출함

2. 자금수요 기초데이터

1) 자금수요 분포

- 경기도 조사대상 총 2,336개의 응답조직 중 자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조직 수는 624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조직 수는 1,712개임. 자금수요가 있다고 응답한 624개 조직 중 4개 조직은 범위가 확인되지 않아 수요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1억원~5억원의 자금수요가 있다고 응답한 조직이 183개(29.5%)로 가장 많았고, 5천만원~1억원의 자금수요가 있다고 응답한 조직이 178개(28.7%)로 두 번째로 비

중이 컸음. 금액적으로는 1억원~5억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549억원으로 44.3%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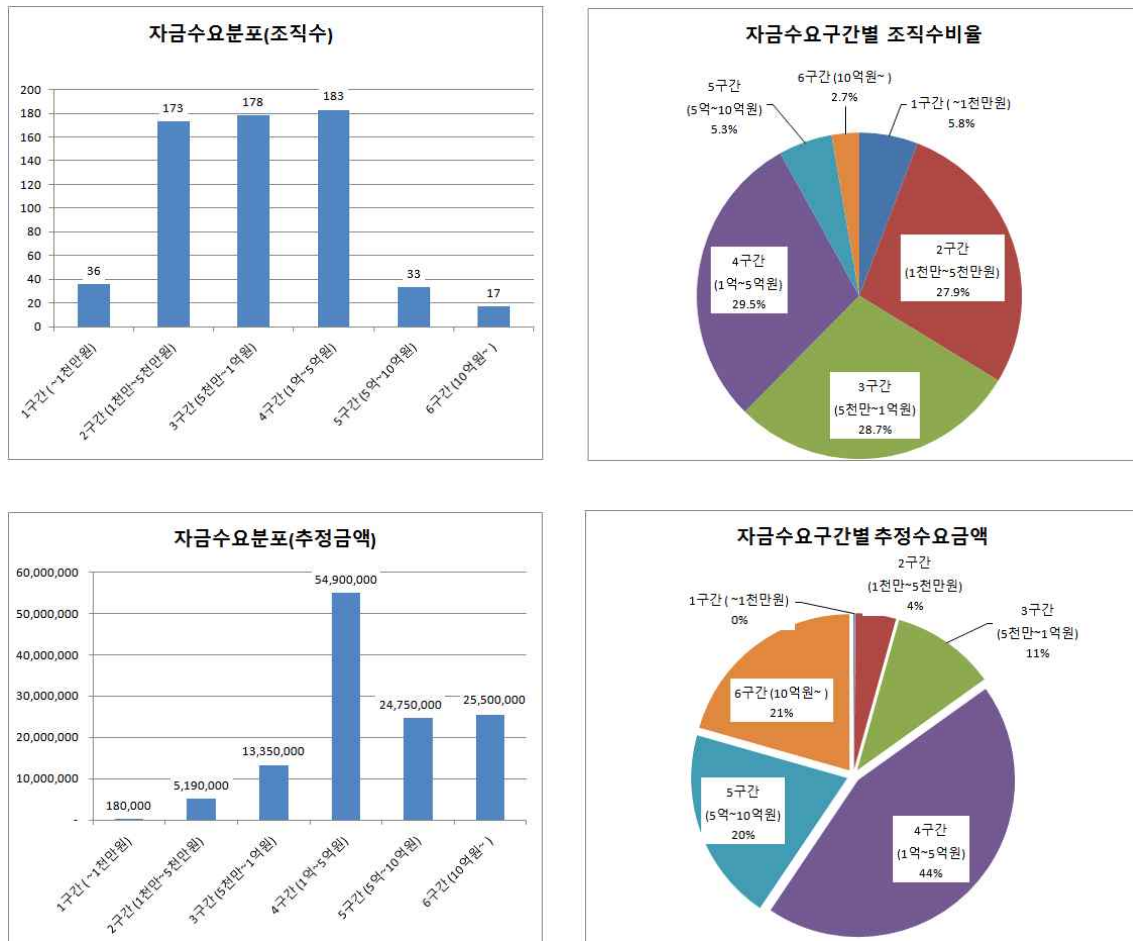


그림 2-1. 자금수요구간별 분포

○ 그림 2-1에서 볼 수 있듯이 조직 수의 경우 2,3,4구간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나, 수요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구간(1억원~5억원)이 확연히 큰 것을 알 수 있음

2) 자금수요와 재무현황

○ 경기도의 자금수요와 재무현황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각 수요구간별 자본금, 총자산, 부채, 매출액, 지출액, 순이익의 평균을 산출해보았음. 이는 수요가 있다고 답한 조직 중 재무정보를 기입한 조직들에 대한 평균값이지만 수요가 있는 조직 전체의 평균값이라 가정하고 분석함

표 2-2. 자금수요별 재무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출자금 (평균)	자본금 (평균)	잔여 부채 (평균)	총자산 (평균)	총 매출액 (평균)	총 지출액 (평균)	순이익 (평균)	조직 수	추정수요 금액
~1천만원	7,530	18,751	25,498	38,178	72,894	49,739	2,482	36	180,000
1천만~5천만원	30,577	36,894	53,285	68,929	160,096	153,292	2,201	173	5,190,000
5천만~1억원	83,575	83,531	165,492	193,552	561,825	499,543	19,040	178	13,350,000
1억~5억원	139,986	159,961	430,854	468,187	952,432	918,665	34,176	183	54,900,000
5억~10억원	137,767	183,906	946,520	943,802	1,537,071	1,144,492	11,112	33	24,750,000
10억원~	230,333	230,333	1,227,500	1,048,667	3,167,600	3,840,500	60,503	17	25,500,000
수요 무응답	103,743	113,896	501,662	405,354	868,872	754,164	35,168	1,716	-
조직 총 평균	94,958	105,449	376,285	343,074	754,970	669,210	26,847	2,336	199,7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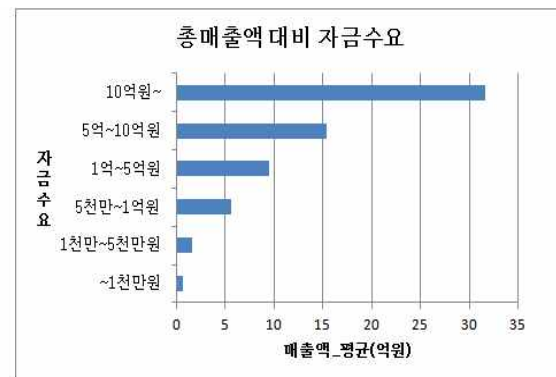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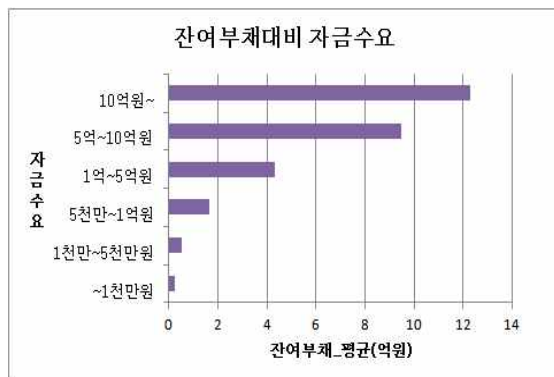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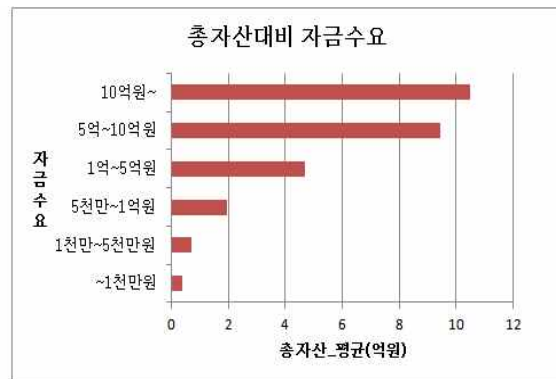




그림 2-2. 자금수요와 재무지표의 상관관계 분석

- 표 2-2와 그림 2-2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금수요가 높을수록 재무적인 규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자본금, 총자산, 부채, 매출액, 총지출이 클수록 자금수요가 크게 나타나는데 반해 순이익의 경우 자금 수요와 비례하지 않음. 1억~5억원의 자금수요를 가진 집단의 평균 순이익이 5억~10억원의 자금수요를 가진 집단의 평균 순이익보다 더 높음. 이를 다른 재무수치들의 경우 회사규모와 비례하고, 회사규모가 자금수요를 반영함에 따라 자금수요와도 비례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순이익의 경우 매출, 비용 등을 정산한 결과적인 수치로서, 다른 재무수치들에 비해 회사규모나 자금수요와는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3) 업종별 자금수요(전국사업체조사 대분류 기준)

- ‘전국사업체조사 대분류 기준’상의 업종분류로 업종별 자금수요 분포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3과 같음.
- 기업 당 평균자금수요금액은 2억원 수준임

표 2-3.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업종별 자금수요(전국사업체조사 대분류 기준)

(단위 : 조직수)

구분	~1천만원	1천만 ~5천만원	5천만 ~1억원	1억 ~5억원	5억 ~10억원	10억원 ~	총계	추정액 (억원)	조직당 평균 (억원)
1.농업,임업,어업	-	11	13	11	2	4	41	121	3.0
2.제조업	4	28	27	45	9	4	117	291	2.5

3.전기,가스,중기 및 수도사업	-	-	1	4	1	-	6	20	3.4
4.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	4	6	5	2	1	19	51	2.7
5.건설업	3	3	4	7	2	-	19	40	2.1
6.도매업,소매업	4	20	29	37	3	1	94	176	1.9
7.운수업	1	1	5	4	1	1	13	39	3.0
8.숙박 및 음식점업	2	18	12	2	-	1	35	36	1.0
9.출판,영상,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	1	7	9	-	-	19	33	1.7
10.부동산업 및 임대업	-	-	-	1	-	1	2	18	9.0
11.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2	5	3	1	-	11	21	1.9
12.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	10	17	19	3	1	55	111	2.0
13.교육서비스업	7	40	18	10	1	1	77	78	1.0
14.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업	1	16	14	9	4	-	44	72	1.6
15.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	15	13	12	4	1	51	96	1.9
16.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4	7	5	-	1	17	36	2.1
17.국제 및 외국기관	-	-	-	-	-	-	-	-	-
	36	173	178	183	33	17	620	1,239	2.0

표 2-4.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업종별 자금수요 순위(전국사업체조사 대분류 기준)

순위	업종(업종별 수요금액순)	수요추정액 (억원)	순위	업종(1개조직당 평균수요금액순)	조직당평균 수요추정액 (억원)
1	2.제조업	291	1	10.부동산업 및 임대업	9.0
2	6.도매업,소매업	176	2	3.전기,가스,중기 및	3.4

3	1.농업,임업,어업	121
4	12.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11
5	15.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96
6	13.교육서비스업	78
7	14.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2
8	4.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51
9	5.건설업	40
10	7.운수업	39
11	16.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36
12	8.숙박 및 음식점업	36
13	9.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3
14	11.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1
15	3.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20
16	10.부동산업 및 임대업	18
17	17.국제 및 외국기관	-
	총합계	1,239

	수도사업	
3	7.운수업	3.0
4	1.농업,임업,어업	3.0
5	4.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 생 및 환경복원업	2.7
6	2.제조업	2.5
7	16.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1
8	5.건설업	2.1
9	12.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0
10	11.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9
11	6.도매업,소매업	1.9
12	15.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1.9
13	9.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7
14	14.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
15	13.교육서비스업	1.0
16	8.숙박 및 음식점업	1.0
17	17.국제 및 외국기관	-
	총평균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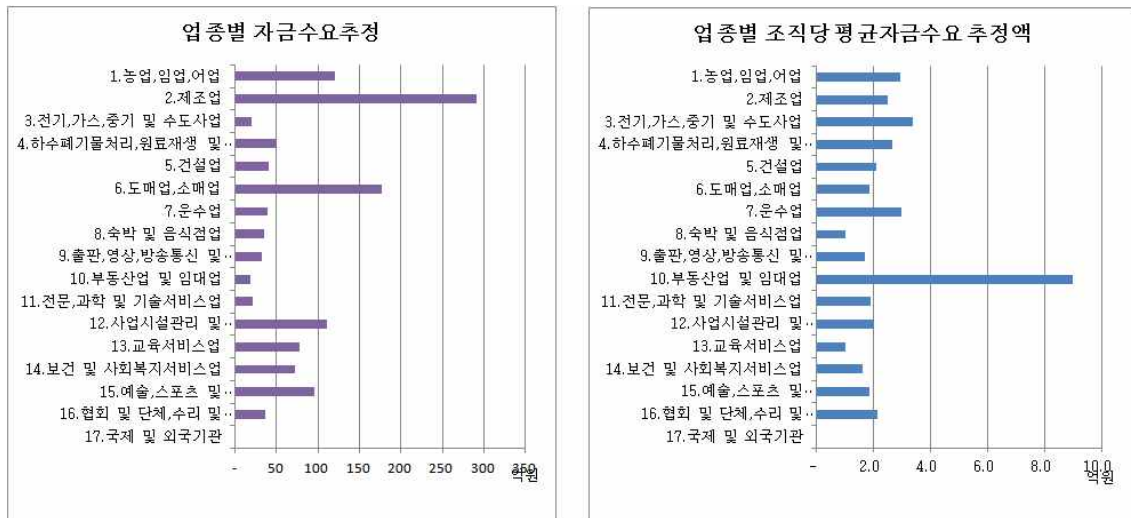


그림 2-3. 업종별 자금수요 추정(전국사업체조사 대분류 기준)

- 업종별 총 자금수요는 제조업 > 도소매업 > 농림어업 순으로 많음. 이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사회적경제기업 조직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업종별 기업 당 평균자금수요추정액 순위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사업 순으로 나타남

3. 서울시 자금수요 추정(조사시점기준)

- 앞서 언급했듯이 위와 같이 분석한 경기도의 자금수요 조사결과의 경우 비교적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토대로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의 현재 수요를 산출하고자 함
- 총 자금수요는 “기업 당 평균자금수요금액(P) X 자금필요기업 수(Q)”를 통해 산정하며 각 요소별로 합리적인 보정지수를 정의함

1) 기업 당 평균자금수요금액(P) 추정

(1) 보정지수 정의

- 앞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를 분석한 바와 같이, 자금수요는 재무규모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재무정보 중 가장 상관관

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 총자산, 매출액을 산출함(2016년 기준)

○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중 2016년 재무규모 확인이 가능한 124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재무규모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표2-5와 같음

표 2-5.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재무현황

(단위 : 천원)

업종	분석대상 기업수	총자산 (평균)	매출액 (평균)
C.제조업	26	2,346,809	4,493,401
F.건설업	11	700,007	1,043,523
G.도매 및 소매업	17	2,776,484	4,898,401
H.운수 및 창고업	1	272,916	5,928,427
I.숙박 및 음식점업	3	431,640	1,289,420
J.정보서비스업	13	898,445	1,237,650
L.부동산업	1	6,574,333	13,241,912
M.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1,312,200	1,228,709
N.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7	484,206	1,533,254
P.교육서비스업	7	486,665	1,523,157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	1,194,705	6,738,613
R.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	189,827	548,748
S.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	992,493	3,819,528
총계(총평균)	124	1,437,839	3,039,163

○ 기초 데이터인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중 자금수요가 있는 기업들의 재무규모는 표 2-6와 같음

표 2-6.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중 자금수요가 있는 기업의 재무현황

(단위 : 천원)

업종	총 대상기업수	자금조달 필요기업수	총자산 (평균)	총매출액 (평균)
A.농업,어업 및 임업	182	41	247,211	399,951
C.제조업	322	117	547,585	834,041
D.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17	6	462,873	23,773
E.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79	19	837,516	2,347,775
F.건설업	78	19	131,712	281,676
G.도매 및 소매업	392	95	267,492	764,068
H.운수 및 창고업	63	13	267,057	953,654
I.숙박 및 음식점업	118	35	96,626	114,278
J.정보서비스업	89	19	256,230	318,243
L.부동산업	23	2	170,000	-
M.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0	11	113,821	233,815
N.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53	55	315,940	1,154,916
P.교육서비스업	334	79	38,451	102,513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3	45	263,655	861,983
R.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7	51	91,763	114,994
S.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3	17	55,629	65,271
기타	3	-	282,537	637,834
총계	2,336	624		

○ 경기도 기업의 재무규모와 서울시 기업의 재무규모의 비율은 총자산과 매출의 평균값을 상호 대비하여 산출하였음.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의 분석결과 총자산과 매출, 자본금, 총부채 규모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금수요와 비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인데, 이중 대체로 상호 비례하고 상호 보완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는 총자산과 매출의 합을 2로 나누어 이를 재무규모조정지수로 사용함

표 2-7. 경기도 대비 서울시의 재무규모조정지수의 산출

(단위 : 천원)

업종	매출액과 총자산의 평균		재무규모조정지수 (서울시/경기도)
	경기도	서울시	
A.농업,어업 및 임업	323,581	-	4.9
C.제조업	690,813	3,420,105	5.0
D.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243,323	-	4.9
E.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1,592,645	-	4.9
F.건설업	206,694	871,765	4.2
G.도매 및 소매업	515,780	3,837,442	7.4
H.운수 및 창고업(*)	610,355	3,100,672	4.9
I.숙박 및 음식점업(*)	105,452	860,530	4.9
J.정보서비스업	287,236	1,068,048	3.7
L.부동산업(*)	276,890	9,908,123	4.9
M.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3,818	1,270,454	7.3
N.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735,428	1,008,730	1.4
P.교육서비스업(*)	70,482	1,004,911	4.9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62,819	3,966,659	4.9
R.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3,378	369,287	3.6

S.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60,450	2,406,010	4.9
총계(총평균)	460,186	2,238,501	4.9

- 상기 표의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의 해당 데이터가 없는 업종에 대한 조정지수는 총 평균 데이터의 조정지수를 사용하였음
- 또한 상기 업종별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의 비교대상 수(표 2-5의 분석대상 기업 수)가 10개 미만인 업종은 평균 조정지수인 4.9를 한도로 하였음(상기 (*) 표시업종). 이는 대상수가 충분하지 않아 발생하는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보정지수에는 상기 재무규모¹⁾조정지수에 수요필요기업의 재무규모를 추가로 반영했으며, 50%의 보정율을 반영하였음.
 - 수요필요기업의 재무비율을 반영한 이유는 전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평균재무규모와 자금수요가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평균재무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며, 경기도의 경우 자금수요가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평균재무비율, 즉 총 조사대상기업의 재무규모(총자산, 매출)대비 수요필요기업의 재무규모는 총 조사대상기업 재무규모의 84%에 그침. 업종별 편차가 있기는 하나 제조업의 경우 77%로, 자금수요가 있는 업체가 평균적으로 규모가 더 작은 집단임을 알 수 있음.
 - 서울시 자금수요의 경우 경기도 자금수요를 바탕으로 산출한 바, 그 비교대상 업체가 재무정보 등이 입수 가능한 124개의 기업으로 전체 기업 수에 비해 미미하고, 재무규모조정지수로 미루어 볼 때 상대적으로 재무규모가 우량한 업체들의 정보가 입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실적 상황에 맞추어 조정이 불가피함. 따라서 50%의 보정율을 추가로 반영하고 업종별로 기업 당 평균 3억원의 한도를 부여하였음. 이는 자금수요 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의 범위에서는 재무규모와 정비례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가수요를 제거하고, 개별적으로는 가능하겠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기업 당 평균 3억원 이상의 수요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임

(2) 업종별 평균자금수요 추정결과

1) 총자산과 매출액의 평균

○ 경기도와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각각의 기업 당 재무규모 비율을 산출하여 서울시의 기업 당 수요를 산출하고, 여기에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업종별 기업수의 비율, 자금수요가 있는 기업수의 비율을 적용하여 서울시 총 자금수요를 산출한 결과 조사시점 현재 약 2,509억원이 산출됨.

표 2-8. 업종별 기업별 평균 자금수요 추정

(단위 : 천원)

업종	경기도 기업당 자금수요	재무규모 조정지수 (서울시/경기도)	추가 보정율	최종 보정지수	서울시 기업당 자금수요
A.농업,어업 및 임업	295,244	4.9	11%	0.55	161,056
C.제조업	249,017	5.0	38%	1.90	300,000
D.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337,500	4.9	30%	1.48	300,000
E.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267,105	4.9	49%	2.36	300,000
F.건설업	210,789	4.2	55%	2.31	300,000
G.도매 및 소매업	187,713	7.4	70%	5.17	300,000
H.운수 및 창고업	296,923	4.9	96%	4.66	300,000
I.숙박 및 음식점업	101,429	4.9	57%	2.77	281,183
J.정보서비스업	171,842	3.7	25%	0.92	157,478
L.부동산업	900,000	4.9	65%	3.16	300,000
M.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89,545	7.3	34%	2.46	300,000
N.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00,909	1.4	61%	0.83	166,750
P.교육서비스업	101,753	4.9	47%	2.29	232,620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4,432	4.9	54%	2.63	300,000
R.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87,353	3.6	44%	1.57	294,616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14,412	4.9	22%	1.09	234,104
총계(총평균)	199,790	4.9	42%	2.0	267,926

2) 업종별 자금필요 기업 수 및 총수요금액 추정결과

○ 서울시 업종별 자금필요 기업 수는 “업종별 총 기업 수 X 자금필요기업 비율”로 추정하였으며, 업종별 자금필요기업 비율은 경기도 자료를 보정 없이 적용함.

표 2-9. 업종별 총자금수요 추정

(단위 : 천원)

업종	서울시 자금수요 기업당수요(P)	서울시 업종별 기업수 (자금필요업종)	업종별 자금필요 기업수 비율	자금필요 기업수 (추정치, Q)	서울시 업종별 총자금수요 (P X Q)
A.농업,어업 및 임업	161,056	89	23%	20.0	3,221,570
C.제조업	300,000	374	36%	135.9	40,780,852
D.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300,000	24	35%	8.4	2,507,099
E.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300,000	46	24%	11.1	3,331,427
F.건설업	300,000	130	24%	31.7	9,516,799
G.도매 및 소매업	300,000	829	24%	198.7	59,618,227
H.운수 및 창고업	300,000	73	21%	15.1	4,543,952
I.숙박 및 음식점업	281,183	105	30%	31.3	8,787,873
J.정보서비스업	157,478	232	21%	49.5	7,801,145
L.부동산업	300,000	64	9%	5.6	1,667,766
M.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0,000	193	18%	35.4	10,613,736
N.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66,750	134	36%	48.1	8,019,223
P.교육서비스업	232,620	683	24%	157.5	36,634,119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000	228	34%	75.6	22,677,625
R.예술,스포츠 및	294,616	309	26%	80.0	23,567,767

여가관련 서비스업					
S.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34,104	179	18%	32.7	7,650,161
총계(총평균)	267,926	3,693		936.6	250,939,343

4. 서울시 자금수요 예측(향후 5년)

- 앞서 추정한 조사시점의 총자금수요를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자금수요를 예측함
 - 총 자금수요는 “기업 당 평균자금수요금액(P) X 자금필요기업 수(Q)”를 통해 산정하며 각 요소별로 합리적인 보정지수를 정의함

1) 주요 가정

- 업종별 성장률(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정보로부터 산출)
 - 업종별 성장률은 자금수요의 종류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재무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였음
 - 한국은행에 발표된 통계자료 가운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각 업종의 매출, 자산, 유형자산의 성장률을 이용함(2015년, 2016년 평균값을 사용)
 - 현재 자금수요가 있다고 응답한 조직의 업종,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발표된 중소기업 성장률을 매칭시키고, 5년간 동일한 성장률로 적용
 - 이를 5개년 간 계속성장으로 보았는데, 자금수요의 경우 2,336개 업체 중 260개 업체가 자금수요를 기입하였고, 이밖에 자금수요가 없는 업체, 신규업체, 기존의 자금수요가 충족된 업체의 자금수요 역시 모두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필요하다고 가정함

표 2-10. 성장률 매칭

자금수요	성장률(2015~2016년)			비고
1. 운영자금	매출증가율	-	-	
2. 시설자금	매출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총자산증가율	단순평균
3. 사업개발비	매출증가율	총자산증가율	-	단순평균
4. 고금리 차입금 대환	매출증가율	-	-	
5. 기타	매출증가율	-	-	

○ 상기 가정을 반영하여 도출한 업종별 자금수요별 성장률은 다음과 같음

표 2-11. 업종별 자금수요별 성장률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률 보정 전)

성장률	1.운영자금	2.시설자금	3.사업개발비	4.고금리 차입금 대환	5.기타	업종별
A.농업,어업 및 임업	4.4%	7.4%	6.5%	4.4%	해당없음	6.6%
C.제조업	4.2%	6.8%	6.2%	4.2%	4.2%	5.8%
D.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0.1%	10.7%	7.5%	해당없음	해당없음	10.1%
E.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0.8%	3.6%	2.6%	해당없음	해당없음	2.7%
F.건설업	12.1%	11.7%	11.9%	해당없음	해당없음	11.8%
G.도매 및 소매업	7.1%	10.5%	8.9%	7.1%	7.1%	8.9%
H.운수 및 창고업	2.9%	6.6%	5.3%	해당없음	해당없음	4.8%
I.숙박 및 음식점업	11.5%	9.6%	10.1%	11.5%	해당없음	10.1%
J.정보서비스업	9.1%	10.6%	10.9%	해당없음	해당없음	10.0%
L.부동산업	해당없음	34.7%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34.7%
M.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0%	17.3%	15.3%	12.0%	해당없음	14.1%
N.사업시설관리,사업지 원 및 임대서비스업	10.4%	18.7%	15.4%	해당없음	10.4%	14.4%
P.교육서비스업	14.3%	14.3%	14.7%	해당없음	해당없음	14.4%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1%	12.5%	12.6%	11.1%	11.1%	12.1%
R.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3%	3.9%	5.3%	해당없음	8.3%	5.7%
S.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1.1%	12.5%	12.6%	해당없음	해당없음	11.9%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성

- 이미 업종별 성장률이 적용되었지만, 통상적인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성장률을 반

영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률을 도출하고자 함

표 2-12.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률

구분	2015년	2016년	2개년 평균성장률	내역
가정1	5.3%	33.1%	18.4%	공시기업평균 (행복나래(주) 포함)
가정2	25.5%	35.3%	30.3%	공시기업매출전체 (행복나래(주) 포함)
가정3	9.3%	11.8%	10.6%	공시기업평균 (행복나래(주) 제외)
가정4	30.4%	11.8%	20.7%	공시기업매출전체 (행복나래(주) 제외)

- 표 2-12의 2년 치 성장률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공시기업 367개의 매출 자료를 이용함
- 경영공시기업 367개 중에는 2014~2016년에 신규로 설립되거나, 2014년, 2015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도 있음. 따라서 매출전체를 대표하는 수치로 볼 때 367개 기업의 매출성장률과는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신규설립, 폐업을 감안할 때 367개 기업의 매출을 합산한 성장률이 사회적경제기업 전체의 매출성장률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각 연도별 1개 조직 당 평균매출성장률을 별도로 산출하여 범위별로 분석하고자 함
- 행복나래(주)의 경우, 전체 공시대상 매출의 35%~46%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매출의 변동도 크므로 해당기업을 제외하고 산출한 성장률도 고려하고자 별도로 산출함
- 표 2-12의 2개년 평균성장률은 가정1을 예로 들면, $[(1+0.053)(1+0.331)]^{(1/2)}-1$ 의 공식으로 구함

○ 이에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성을 반영하기 위한 보정성장률을 다음과 같이 산출함

표 2-13. 사회적경제기업에 적용할 보정성장률 도출

구분	사회적기업2개년 평균매출 성장률	중소기업 2개년 평균매출 성장률	보정성장률	비고
가정1	18.4%	8.5%	9.1%	
가정2	30.3%	8.5%	20.1%	
가정3	10.6%	8.5%	1.9%	

가정4	20.7%	8.5%	11.3%	
평균보정성장률			10.6%	평균

- 표 2-13의 보정성장률은 가정1을 예로 들면 $(1+0.184)/(1+0.085)-1$ 수식으로 산출
- 상기 중소기업 전체의 2개년 간 평균성장률은 2014~2015년 한국은행통계자료의 중소기업매출성장률을 이용하여 산출함

○ 상기 보정성장률 중 행복나래(주)를 제외한 평균성장률(가정3)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성장률에서 추가 성장하는 경우(10.6%)와 성장이 없는 경우(0%, 일반성장), 반대로 쇠퇴하는 경우(-10.6%)의 세 가지 경우를 가정하여 분석하고자 함

표 2-14. 업종별 자금수요별 성장률 및 사회적기업성장률 보정 후 성장률

성장률	보정전	보정후		
		감소성장	중소기업일반성장	증가성장
A.농업,어업 및 임업	6.6%	-4.7%	6.6%	17.9%
C.제조업	5.8%	-5.4%	5.8%	17.0%
D.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10.1%	-1.6%	10.1%	21.7%
E.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2.7%	-8.2%	2.7%	13.6%
F.건설업	11.8%	-0.1%	11.8%	23.7%
G.도매 및 소매업	8.9%	-2.7%	8.9%	20.5%
H.운수 및 창고업	4.8%	-6.3%	4.8%	15.9%
I.숙박 및 음식점업	10.1%	-1.6%	10.1%	21.8%
J.정보서비스업	10.0%	-1.7%	10.0%	21.7%
L.부동산업	34.7%	20.4%	34.7%	49.0%
M.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1%	2.0%	14.1%	26.2%
N.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4.4%	2.2%	14.4%	26.2%

P.교육서비스업	14.4%	2.3%	14.4%	26.6%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1%	0.1%	12.1%	24.0%
R.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7%	-5.5%	5.7%	16.9%
S.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1.9%	0.0%	11.9%	23.8%

2) 자금수요 예측 결과

○ 업종별 5개년 자금수요 예측결과_사회적경제기업 일반성장 적용 시

표 2-15. 업종별 5개년 자금수요 예측_일반성장 적용

(단위 : 억원)

구분	수요 예상 조직수	조사시점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향후 5년간 자금수요
A.농업,어업 및 임업	20	32	34	37	39	42	44	196
C.제조업	136	408	432	457	483	511	541	2,423
D.전기,가스,증기 및 기조절공급업	8	25	28	30	34	37	41	169
E.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원료 재생업	11	33	34	35	36	37	38	180
F.건설업	32	95	106	119	133	149	166	673
G.도매 및 소매업	199	596	649	707	771	839	914	3,881
H.운수 및 창고업	15	45	48	50	52	55	57	262
I.숙박 및 음식점업	31	88	97	107	117	129	142	592
J.정보서비스업	50	78	86	95	104	114	126	525
L.부동산업	6	17	23	30	41	55	74	223
M.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5	106	121	138	158	180	206	803
N.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48	80	92	105	120	137	157	611

임대서비스업								
P.교육서비스업	158	366	419	480	549	628	719	2,795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6	227	254	285	319	358	401	1,616
R.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0	236	249	264	279	295	312	1,398
S.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3	77	86	96	107	120	134	543
계	937	2,509	2,757	3,033	3,341	3,686	4,072	16,889

3) 자금수요 예측 분석

표 2-16. 업종별 자금수요(조사시점기준)

구분	수요예상 조직수(개)	추정액 (억원)	조직당 평균금액 (억원)	자금수요비율
A.농업,어업 및 임업	20	32	1.6	1.3%
C.제조업	136	408	3.0	16.3%
D.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8	25	3.0	1.0%
E.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11	33	3.0	1.3%
F.건설업	32	95	3.0	3.8%
G.도매 및 소매업	199	596	3.0	23.8%
H.운수 및 창고업	15	45	3.0	1.8%
I.숙박 및 음식점업	31	88	2.8	3.5%
J.정보서비스업	50	78	1.6	3.1%
L.부동산업	6	17	3.0	0.7%
M.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5	106	3.0	4.2%
N.사업시설관리,	48	80	1.7	3.2%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P.교육서비스업	158	366	2.3	14.6%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6	227	3.0	9.0%
R.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0	236	2.9	9.4%
S.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3	77	2.3	3.0%
합계(총평균)	937	2,509	2.7	100.0%

- 상기 표와 같이 총수요금액으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큼

표 2-17. 업종별 자금수요 예측_사회적경제기업 일반성장시

(단위 :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향후5년간 전체수요	전체수요 비율	연간평균 증가율
A.농업,어업 및 임업	34	37	39	42	44	196	1%	6.6%
C.제조업	432	457	483	511	541	2,423	14%	5.8%
D.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28	30	34	37	41	169	1%	10.1%
E.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34	35	36	37	38	180	1%	2.7%
F.건설업	106	119	133	149	166	673	4%	11.8%
G.도매 및 소매업	649	707	771	839	914	3,881	23%	8.9%
H.운수 및 창고업	48	50	52	55	57	262	2%	4.8%
I.숙박 및 음식점업	97	107	117	129	142	592	4%	10.1%
J.정보서비스업	86	95	104	114	126	525	3%	10.0%
L.부동산업	23	30	41	55	74	223	1%	34.7%
M.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1	138	158	180	206	803	5%	14.1%
N.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92	105	120	137	157	611	4%	14.4%

P.교육서비스업	419	480	549	628	719	2,795	17%	14.4%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54	285	319	358	401	1,616	10%	12.1%
R.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49	264	279	295	312	1,398	8%	5.7%
S.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86	96	107	120	134	543	3%	11.9%
합계(총평균)	2,757	3,033	3,341	3,686	4,072	16,889	100%	10.2%

○ 자금수요 분석결과_사회적기업 성장보정률의 가정별 수요산출

표 2-18. 시나리오별 사회적기업의 총자금수요

(단위 :억원)

사회적기업 성장보정률 적용	연평균 자금수요 성장률	2016년 (조사 시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향후 5년간 자금수요	평균비율 적용대비 각 비율
(감소성장) -10.6%적용	-1.80%	2,509	2,457	2,408	2,363	2,323	2,287	11,837	70%
(일반성장) 0%적용	10.20%	2,509	2,757	3,033	3,341	3,686	4,072	16,889	100%
(증가성장) +10.6%적용	22.20%	2,509	3,058	3,731	4,557	5,575	6,830	23,751	141%

- 상기와 같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률과 공시된 일반기업 평균성장률을 조정한 성장보정률을 각 가정과 방법별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그 보정성장률들을 최소, 평균, 최대치로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5년간 자금수요는 총 1조1,837억원 ~ 2조 3,751억원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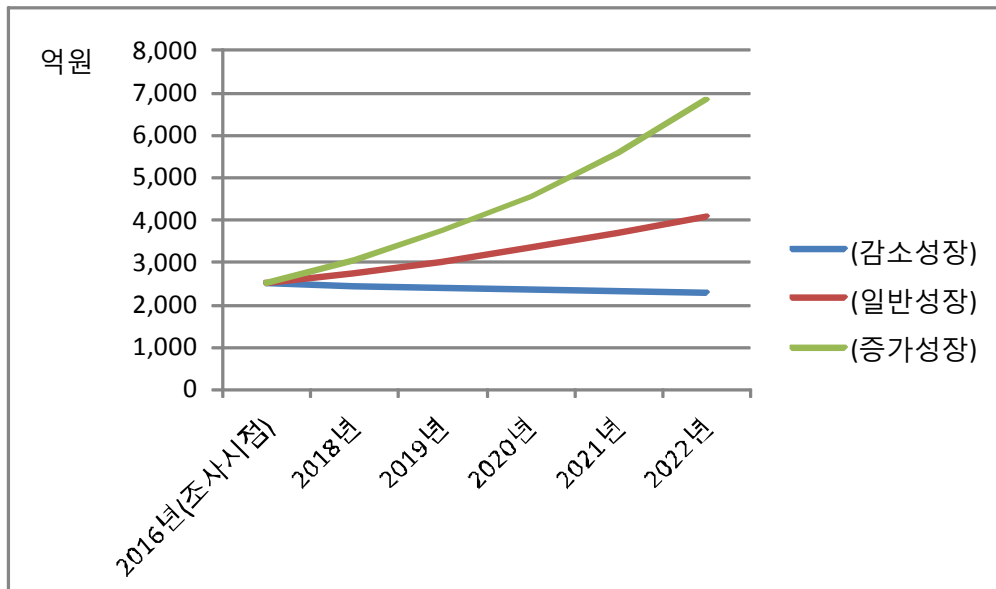


그림 2-4. 시나리오별 사회적기업 자금수요 예측

제3장 자금공급 및 매칭 분석

1. 자금공급 현황 및 계획

2. 자금수요와 공급 매칭

제3장 자금공급 및 매칭 분석

1. 자금공급 현황 및 계획

○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방법

- 2016년 시행한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자금수요조사 및 정책자금평가연구²⁾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요 자금조달방법은 다음의 그림 3-1과 같음
- 정부보조금 및 정부정책자금의 공공재원에 주로 의존하고 있음
- 공공재원의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들의 발표 자료를 통해서 향후 자금공급 계획을 파악·유추할 수 있음
- 이에 자금공급 현황 및 계획을 공공재원에 해당하는 공적자금과 지자체기금, 그 외 민간기금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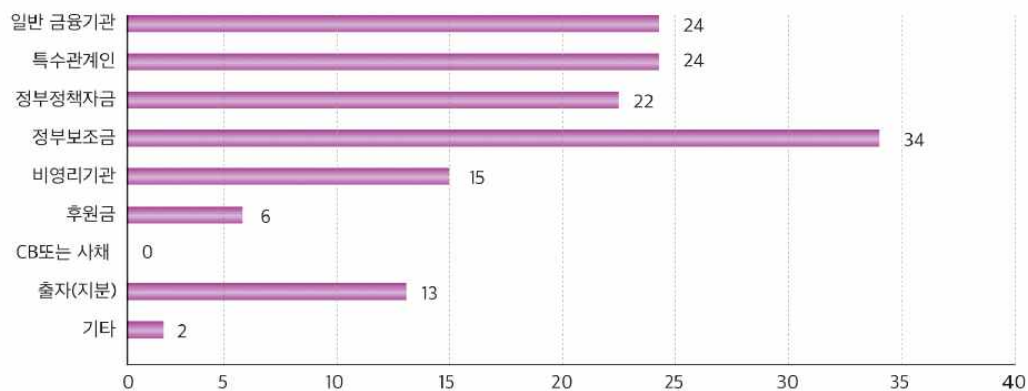


그림 3-1. 주요 자금조달 방법

1) 공적자금 : 모태펀드,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임팩트펀드 등

(1) 모태펀드

2) 사회적금융개발연구원(2017),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자금수요조사 및 정책자금평가연구, 2016 사회적경제 연구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지원 개요

- 정부예산과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기업에 지원(투자)할 수 있는 민간자금조달 기반 마련
 - 정부가 초기자금을 출자, 민간도 출자에 참여하여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 운용 현황

- 조합결성 : 총 182억원 규모의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 제1호(11년) 42억원, 제2호(12년) 40억원, 제3호(13년) 60억원, 제4호(15년) 40억원 규모로 결성
 - 고용노동부가 각 조합에 25억원 씩 초기자금 투입
- 투자집행 : (예비)사회적기업 등 27개 기업(중복포함 33개 기업)에 총 161.4억원 투자
 - 주목적투자 95.5억원 + 일반중소기업투자 65.9억원

○ 성과 및 한계

- 고용증가 : 투자받은 14개(17년 투자 1개 기업 제외)기업의 투자 이전 대비 근로자수 52.4%(163명) 증가
- 경영실적 개선 : 투자받은 10개 기업(투자 전년 및 당해연도 창업 4개 기업, 17년 투자 1개 기업 제외)의 투자 이전 대비 매출액 98.7%(309.1억원) 증가
- 사회적 가치 및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특성 상 고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투자운용사 선정 및 민간출자금 모집 어려움
 - 수익률보다 사회공헌을 위한 투자공감대 형성 필요

○ 18년 운용 계획

- 규모 : 예산 100억원(예정) + 민간출자금 60억원(예상) 내외
 - 민간출자금은 총 출자금의 30%(43억원)이상 모집(제1~4호 조합과 동일)
- 자조합 수 : 민간출자금 예상 정도를 감안하여 1개 혹은 2개 조합 결성
- 투자대상 확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경제기업(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포함)
- 운용개요
 - 운용기간 : 8년(투자 4년, 회수 4년)
 - 투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총 출자금의 60%이상 투자
 - 투자규모 : 1개 기업에 약 4.8억원*씩 투자할 경우 약 31개(민간출자금 50억

원) ~ 35개(민간출자금 70억원) 기업에 투자 가능

(*기존 조합들의 1개 기업 당 평균 투자금액)

- 관리보수 : 조합결성 ~ 3년까지는 출자금 총액의 2.0% 연간 지급
3년경과 ~ 해산 시 투자 잔액의 2.0% 연간 지급
-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의 25%
(기준수익률은 민간출자금 4~5%, 정부예산 2% 내외)

(2) 신용보증기금

○ 지원 개요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보증조건 및 심사방법 등을 우대하여 보증제도 운용
 - 최저수준의 고정보증료(연 0.5~0.8%), 전액보증, 별도 심사서를 적용한 심사 절차 우대 등

○ 운용 현황

-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제도

표 3-1.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제도

구분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협동조합 희망보증	
도입시기		12.3월	13.9월	
총량한도		200억원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원 사업자
우대 사항	보증 한도	같은 기업 당 1억원	1억원	50백만원
	보증료	연 0.5% (고정)	연 0.5% (고정)	연 0.8% (고정)
	보증 비율	100%		
	심사서	정책보증 심사서		
	심사 우대	- 사업장 권리침해 등 저촉여부 판단기간 1년 → 6개월로 완화 - 차입금 비중 및 신용도취약기업 주요항목(신용도 열위) 적용 배제		

- 보증공급 : 제도 도입 이후 사회적기업 228개 업체에 173억원, 협동조합 108개 업체에 61억원의 보증 공급

(평균보증금액 : 사회적기업 80백만원, 협동조합 52백만원)

- 보증부실 : 16년 말 사회적경제기업 부실률은 4.6%로 신보 전체 부실률 대비 (3.9%) 0.7%p 높음

○ 성과 및 한계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금융상품 부재, 지원한도 부족, 자원부족 등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활성화에 미흡
-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맞춤형 보증상품 부재, 매출규모 대비 보증한도 미흡
-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 및 정책성 금융 프로세스의 부재
- 안정적 보증공급 및 금융지원을 위한 별도 자원 조성 필요

○ 18년 운용 계획

- 사회적경제 보증제도 개선
 - 기업 당 보증한도 : 1억원 → 3억원 개선
 - 한도사정 특례 : 사회적기업은 50백만원 → 1억원, 협동조합은 30백만원 → 50백만원
 -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면제 적용
- 마을기업 두레보증, 자활기업 초록보증 신상품 출시
 - 기업 당 보증한도 : 같은 기업 당 1억원 이내
 - 한도사정 특례 : 30백만원 이하 보증은 한도사정 생략
 - 연대보증인 :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입보 면제
-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 : 시중은행과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확대하여 보증료 중 일부(연간 0.3%p 이내)를 협약은행이 미리 납부한 보증료 지원금으로 최장 5년 이내 지원
- 상품 구조 : 10년 이상의 장기자금 조달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 운영
 - 예) 신규취급의 경우 3년 만기 일시상환, 1·2차 갹신취급의 경우 3년 만기 거치기간 없는 분할상환
- 보증연계투자 및 투자옵션부 보증을 통한 사회적경제 투자 활성화
 - 전체투자규모 등을 감안하여 22년까지 150억원 투자 등 지원
- 정부 재정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 신설
 - 22년까지 최대 5000억원의 보증 공급
 - 높은 부실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 운용배수를 8배 수준으로 운용

(3) 중소기업진흥공단

○ 운용 현황

-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저리대출 ('16년 82억원)
 - 17년 약 1조 4천억원 정책자금 공급

○ 성과 및 한계

- 17년 약 1조 4천억원 정책자금을 공급 하였으나 사회적경제분야로 유입된 정도는 미미한 수준임
- 정책자금 내 사회적기업 관련 계정과 심사기준이 부재함
 - 일반 중소기업, 벤처기업과는 다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이라는 강점을 따지지 않고 재무적 가치만으로 심사·평가함
- 정보접근성 제약
 - 정책자금과 기업자금, 지자체기금이 혼용되고 일관성 및 원칙이 부재함에 따른 정보접근성 문제가 심각함
 - 금융지원에 관한 정보의 종합적 취합 및 제공 필요

○ 18년 운용 계획

- 중소벤처기업부가 '17년 12월 26일 발표한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3조7천350억원에 달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총액 대출목표
 - : (16년) 106억원(실적) → (17년) 200억원 → (18년) 350억원
-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평가 체계 재편
 - 수출>성과공유>고용창출 기업 순에서 → 고용창출>일자리안정자금수급>성과공유 기업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정책우선도 평가제도* 개편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신청이 많이 접수될 경우 심사대상의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제도)
 - 정책자금 평가배점의 일자리 부문 평가배점을 현행 10점 → 20점으로 증대
 -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이자환급 제도(대출이후 신규고용 1인당 0.1%p 이자환급, 최대 2.0%p)와 대출한도 확대(최대 70억원) 등 인센티브 제도도 지속 운영
- 혁신성장 관련 예산 대폭 증가

- 창업기업지원자금이 1조6천500억원 → 1조8천660억원으로 13.1% 증가
- 3천300억원 규모의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신설
 -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신기술·신산업*분야 기업들에 5~10년간 2.30% 수준의 금리로 70억원 한도 대출 지원
 - (*신산업 분야 예시 : 태양전지·지열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재활용 등의 환경개선 및 환경보호)

(4) 임팩트펀드

○ 지원 개요

-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펀드
 -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 아님. 유사개념인 사회적기업이 확장된 사회경제적기업의 한 축으로 논의되기 시작
- 개인 혹은 민간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임팩트 투자를 정부차원에서 활성화

○ 운용 현황 (기존의 민간 임팩트 투자 현황)

- 국내 임팩트 투자 시장 규모³⁾ : 약 180억원 (한국사회투자 제외)
 - 기업 당 3억원 미만 투자가 82%
 - 세계 임팩트 투자 규모 : 17년 29조 1300억원⁴⁾
- 임팩트 투자기관 : 10여 곳
 - 예) 소풍, 크레비스, D3쥬빌리, KAIST청년창업투자지주, 행복나눔재단 등
 - 펀드 규모 : 약 500억원

○ 한계

- 소셜벤처의 창업·성장 등을 지원하는 민간 중심 생태계 미성숙
 - 민간 임팩트투자기관 적음, 소셜벤처투자에 대한 인식 부족
 - 소셜벤처 발굴·육성 기반 부족
- 세계적으로 임팩트펀드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3~4년 전 태동 이후 성장기로 진입하지 못하는 실정

3) 산업은행 경제연구소(2015.05.30.), <국내 임팩트 투자 동향과 시사점>

4) JP모건과 GIIN(글로벌임팩트투자네트워크)

○ 18년 운용 계획

① 중소벤처기업부

- 임팩트 투자펀드
 - 운용방식 : 펀드 조성 후 3~4개 벤처캐피탈(VC)이 운용
 - 투자규모 : 900~1000억원
 - 펀드 당 모태펀드 80%(720~800억원) + 민간 20% 출자
 - 3개(300억원씩 900억원) 혹은 4개(250억원씩 1000억원) 펀드 운용
 - 운용기간 : 10년 내외 (투자 5~6년, 회수 4~5년)
 - 주 투자대상 : 펀드 결성금액의 60%를 “소셜벤처”에 투자
 - 인센티브 : 모태출자비율 범위 내 우선손실 충당, 콜옵션 부여
- 임팩트 매칭펀드
 - 운용방식 : 요건을 갖춘 투자자가 소셜벤처 등에 선투자 후신청 시 선투자금액에 매칭투자
 - 투자규모 : 100억원
 - 매칭비율 : 투자자 투자금액의 최대 2배수 이내
 - 투자한도 : 투자대상기업 당 1회 2억원 한도로, 총 2회 3억원 이내

② 금융위원회

- 사회투자펀드
 - 성장사다리펀드의 하위펀드로 신규 조성
 - 투자규모 : 총 300억원
 - 성장사다리 100억원 + 민간 200억원 출자
 - 3개 펀드 운용
 - 향후 5년간 1000억원 규모까지 늘릴 계획
 - 주 투자대상 : 사회경제적 기업

2) 지자체기금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1)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 지원 개요

- (재)한국사회투자자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위탁받아 운용
-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국내외 사회적경제조직에 자금을 투
 용자하는 투자기금
 - 투자기관(기부자)으로부터 자금유치 → 투자기관의 사회공헌 전략에 부합하는
 투융자운용전략 수립 →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사업체 발굴 → 사
 회적가치 및 재무적가치(상환가능성)를 평가하여 투융자 대상 선정
 - 해당 사회적경제기업들과 재무적 파트너 관계를 설정하여 투자 효율성 강화
 - 투융자된 자금을 회수하여 투융자 대상 재발굴 및 재투자함으로써 한정된 재
 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자금의 선순환 구조 확립

○ 운용 현황

- 한국사회투자에 4년간(13년~16년) 550억 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위탁하여 운
 영함
- 177억 원의 민간기금을 유치하여 매칭운용
 - 사회적기업 융자, 소셜하우징 융자, 중간지원기관협력사업 융자, 사회적프로
 젝트 융자 등의 사업 수행
-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 중 가장 많은 자금을 가장 낮은 이자
 로 공급해옴
 - 민간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대비 2배 규모의 자금 공급
 - 15년 전체 공적기금 융자금액 157억 중 84억(53%)으로 가장 많은 자금 지원
 - 사회투자기금의 대출금리는 2%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평균 대출금리인
 3.25%를 크게 하회함
- 중간지원기관협력사업 융자의 경우, 신협(북서울 20억, 동작 19억, 논골 4억), 한
 기협공제사업단(5억), 사회혁신기금(2억), 신나는조합(14억) 등 13년~15년까지
 누적금액 총 147.5억 원을 집행함⁵⁾

○ 성과 및 한계

- 기준대비 매출액 약 1.7~3배 증가, 기준대비 당기순이익 평균 2.6배 증가로 사회
 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 제고
- 기준대비 기업 당 고용 1.55~1.6배 증가로 일자리 창출 및 시민복리 증진
- 저신용 무신용 등급 61건 자금지원으로 피대출기업 중 무신용법인 신용발생

5) 일자리노동정책관 2017; 노수임 2016; 한국사회투자 2015

(33%) 및 신용도 향상(18%)

- 일반은행 기업대출(3.25%) 대비 45억원, 중소기업 정책자금(2.47%) 대비 25억원의 이자비용 절감으로 금융조달비용 감소
- 최근 임팩트투자조성과 정책자금 사이에서 다른 기금과 차별화된 사회투자기금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됨
- 서울시가 손실액을 0으로 생각하고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하여 규모가 있고 우수한 기업들만을 지원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부실채권 발생에 대한 관점, 금리책정에서의 혁신성, 용자 대상선정의 유연성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기금으로서의 역할 재정립 필요

○ 18년 운용 계획

- 규모 확대 : 총 800억원 규모로 169억원 운용
 - 용자성 사업비 : 사회적경제기업 용자 80억원, 소셜하우징 용자 50억원
 - 비용자 사업비 :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 10억원을 포함한 12억7000만원
 - 예치금 26억원, 기본경비 1억4000만원 등으로 구성
- 서울시는 지속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 전체 기금 규모를 1000억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임
- 소셜벤처 육성전문기관 등과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
 - 서울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10억원 출자를 포함하여 30억원 규모로 운용
 - 존속 기간 : 8년 이상
 - 투자수익률 : 4%
 - 투자→성장→자금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구축 및 전문 보육지원 육성 프로그램 운영
- 대출금리를 상승 조정하고 CD금리를 베이스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며 대출금리를 상승 조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음
 - 금리가 조정될 경우 사회투자기금의 매력도와 수요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CD금리 수준이라면 여전히 최저금리가 될 것이므로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제기 중

(2)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 지원 개요

-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한 자금 확보 및 운영
-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으로 역량강화 및 성장지원

○ 운용 현황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표 3-2.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계(A)	전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이 자 수 입	계(B)	비용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2015년	285,000	285,000	0	0	0	0	0	0	285,000
2016년	205,841	197,000	3,116	5,725	184,900	3,300	180,000	1,600	20,941
2017년	276,170	201,000	66,470	8,700	371,860	19,760	350,000	2,100	△95,690
2018년	407,000	275,000	123,000	9,000	468,760	45,400	420,000	3,360	△61,760
계	1,174,011	958,000	192,586	23,425	1,025,520	68,460	950,000	7,060	148,491

• 17년 융자사업 내역

- 2017년 융자사업 계획금액 : 3억원
- 8개 기업에 총 240,000천원 융자 (17.10.융자예정기업 1개 있음)

• 운용개요

- 융자금리 : 연리 1.5 % / 연체금리 : 대출금리 + 1.5%
- 상환기간 :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융자한도 : 1개 기업당 최대 30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2조 제 5호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구 관할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기업 또는 조직

○ 18년 운용 계획

- 재원조성 : 일반회계 기금전입금(우리은행 협력사업비)및 이자수입

표 3-3.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017년도말 조성액 (A)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 (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B)		
210,251	407,000	468,760	△61,760	148,491	

- 기금 총 조성규모

표 3-4.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18년도말 조성액(A)	융자금 미회수채권(B)	총 조성규모(A+B)
148,491	710,530	859,021

- 융자성 사업
 - 2018년 융자사업 계획금액 : 3억원 (2017년과 동일)
 -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
 - 융자성 사업비 중 120천원은 크라우드펀딩 관련 별도 융자지원
- 비용자성 사업
 - 지역상생 크라우드 펀딩 진행
 - 예산액 : 13960천원 → 17000천원으로 3040천원 증액 (홍보비 등)
- 신규추가 예산
 -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편성 : 2천만원

3) 민간기금 :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신탁, 공제기금 2곳 등

(1) 사회연대은행

○ 사업 개요

- 사회적금융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지

원하는 비영리금융기관

○ 운용 현황 및 성과

① 마이크로크레딧* 창업지원 사업

- *담보 및 보증 부족, 고용의 불안정성,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금융 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소액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해줌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활동
-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 인적 능력,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
- 프로그램
 - 개인 창업/운영자금 지원
 - 긴급자금 지원
 -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 지원업체 업종별 교육 및 자조모임 지원
- 누적지원현황 (17년 12월 말 기준)
 - 누적 대출금 : 약 439억원
 - 누적지원건수 : 2233건
 - 고용창출수 : 4581명
- 2017년 사업 실적
 - 서울시, KDB나눔재단,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강남구,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26억여 원의 자금을 제공받아 116건의 사업을 집행
 - 4백만원 규모의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 지원 사업도 수행
- 창업자금 대출 후 사후관리의 경우, 2016년 전체 건수는 직접방문 1705건·전화상담 2,363건·기타 교육 680건 등

②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 좁은 의미의 금융소외계층(저소득, 차상위)에서 넓은 의미의 금융소외계층(자금조달을 정부재원 및 기부금에 의존하는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으로 확대하고자 2008년부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지원하는 '소셜파이낸스(social finance)'시행, 사회적 기업가 발굴·지원 시스템 개발 및 새로운 금융기법 활용 등을 위한 역량 축적
- 주요사업
 - 소셜파이낸스 사업 : 사회적자본을 조성하여 장·단기 저리로 융자

- 인큐베이팅 & 네트워킹 : 사회적기업에 창업에 필요한 공간·자금·네트워킹·멘토링 등 창업 인프라 및 생태계 조성
 - 연구 & 개발 : 금융상품, 참여형 사회적기업 지원 모델, 자금조달 매뉴얼, 경영환경 평가지표 개발과 전략적 사회공헌사업 제안
 - 정부 위탁 사업
 -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사회적기업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비·임대차보 증금·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대부사업 : 임대 및 시설구입비는 최대 4억원, 운영자금은 최대 1억원 제공
 - 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서울권역 위탁기관으로 참여하여 성북구청·KDB대우증권·고려대초우량조직연구센터와 4자협약 체결하는 등 지역 및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전담멘토·교육 및 컨설팅·인큐베이팅 공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 민간 위탁 사업 : 대표사례 LG Social Fund 사업
 - LG전자와 LG화학이 제공하는 자금을 친환경 사회적경제기업에 사업자금·경영 교육·해외탐방·컨설팅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회적경제 모델 육성
 - 창업기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최대 5천만원 무상 지원, 성장·성숙기 기업에는 최대 1억원 무이자 융자 지원함으로써 성장단계별 맞춤형 재정지원 시행
 - 15년에는 10억원으로 19건 지원, 16년에는 12억원으로 21건 지원, 17년에는 16억원으로 28건 지원
 - 17년 사업 실적
 - 21억여 원의 자금을 제공받아 69건의 자금지원사업 집행 (LG Social Fund 사업 실적 포함)
 - 9억 4천여원의 자금을 제공받아 52건의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 사업 집행
- ③ 마이크로크레딧 교육, 연구 사업
-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마이크로크레딧 실태·정책 연구 및 마이크로파이낸스 기술전수, 마이크로크레딧 활동 전문가 양성교육과 시니어·영세자영업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주요사업
 - 마이크로크레딧 활동 전문가 양성
 - 창업가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
 - 마이크로크레딧 관련 창업 및 경영 컨설팅

- 마이크로크레딧 창업업체 경기실사 지수 발간
- 기타 마이크로크레딧 관련 연구 용역
- 마이크로크레딧 정책개발 및 옹호활동
- 기관 연합 지원활동
- 국제 마이크로크레딧 네트워크 활동
- 마이크로크레딧 출판 활동
- KDB시니어브리지 아카데미 시행
 - KDB나눔재단의 지원으로 시니어에게 적합한 취업·창업 모델 발굴, 사회공헌 활동 의사가 있는 시니어 대상 인턴십·시니어 단체 육성·통합적 정보 제공
 - 아카데미 출신의 시니어들이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를 돕는 비영리민간단체 희망나눔세상을 설립함
- 17년 사업 실적
 - 162명에게 시니어 교육 6회 제공
 - 20개소 자영업자들의 경영개선교육 및 컨설팅
 - 27명에게 재무컨설팅 6회 제공
- 16년의 경우, 풀뿌리 회원 744명으로부터 2억7천3백만원 후원, 민간재단으로부터 지정기탁금으로 53억을 제공받는 등 총수입 95억원 중 80억원 지출
 - 일반 관리비는 47억원, 지정기탁사업지출액은 69억원

○ 18년 운용 계획

- KT&G, 언더독스와 'KT&G 상상 스타트업 캠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팀별 최대 3000만원의 초기 사업자금 및 해외 벤치마킹 기회, 사무실 입주비를 지원하는 등 창업지원사업 확대
- 2017년에 이어 예금보험공사(사장 광범국)와의 '우리가게 희망예보' 협약 사업을 실시하여 경영 전반에 대한 경영역량강화 교육, 전문가 1:1 맞춤 컨설팅, 최대 3백만원 경영환경 개선자금 무상 지원 등 기존의 지원 사업들을 지속·확대할 방침

(2) 신나는 조합

○ 사업 개요

① 사회적금융사업

-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 저소득·저신용자들의 창업을 통해 자활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 과소자본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임
 - 미소금융재단의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중간기관협력 융자사업*에 참여하여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자금 제공
 - (* 2015년까지 총 14억원 대출, 7억 원은 사회투자기금을 통한 무이자 조달, 나머지 7억 원은 자체 재원 조달)
-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조달 교육 :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증진
 - 정책자금 및 민간자금 제도 안내
 - 자금조달을 위한 재무관리
 - 자금조달을 위한 실적 tip
 - 지원업체 업종별 교육 및 자조모임 지원

②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인식 확산 및 부처별 특성에 맞는 기업 발굴·육성
 - 부처형 지정제 운영지침 수립 시행 지원
 - 부처별 지정 공모,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심사 선정 등의 업무 지원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주 교육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모니터링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지원
 - 중앙부처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모델 발굴 지원
 - 지정 변경, 지정 취소·반납 관련 지원 업무
- 서울시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 : 2003년부터 서울시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사회적기업 확대 및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 사회적기업 설립 및 인증지원
 - 사회적기업 경영상담 및 현장지원
 - 사회적기업 역량강화 교육
 - 신규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확산
 -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 시니어 사회적경제기업 취·창업지원사업
 - : 시니어의 경험과 역량을 사회적경제기업들과 연계하여 시니어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생산적인 사회구성원 역할 수행 지원

③ 협동조합 지원 사업

- 협동조합 설립지원
- 협동조합 경영상담 및 현장지원
- 협동조합 조합원 맞춤교육
- 협동조합 성공모델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 협동조합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 사회적금융관련 운용 현황 및 성과

-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 대출한도 : 1인당 3천만원 이내 (경영개선자금의 경우 2천만원 이내)
 - 자금용도 : 임대보증금,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
 - 상환기간 : 12개월 거치 48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 1.8%
 - 대출대상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연소득 3천만원 이내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서울희망플러스통장 또는 꿈나래통장 저축 완료한 자
 - 실직자,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 사회적경제기업 용자 사업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한도
 - 대출금리 :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연 1.8 ~ 3.0% 고정금리)

표 3-5. 사회적경제기업 용자 사업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금리
12개월 이하	1.8%
24개월	2.2%
36개월	2.6%
48개월	3.0%

- 연체이자 : 5%
- 대출기간 : 3년
- 상환방법 : 12개월 이하는 만기일시상환,
12개월 초과는 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없음)
- 선정기준 : 사업타당성, 신청자금의 타당성, 대표자의 마인드 및 상환 가능성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 2017년 수입예산 총액 : 57억8천4백만원
 - 대표적인 구성내역
 - : 개인 회비 1천2백만원, 기업후원금 1억7백만원, 사회적경제사업보조금 7억3천1백만원,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운영보조금(서울시 위탁운영비 지원금) 2억4천3백만원, 대출사업자금 16억원(미소금융재단 사회적경제기업융자사업 10억원, 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융자사업 6억원), 사회적금융사업수입 9억3천2백만원, 사회적경제사업수입 1억5천5백만원
 - 대표적인 지출예산 내역
 - : 사회적금융사업비 20억3천3백만원(대출금 19억6천만원, 대출사업홍보비 1천4백만원, 심사운영비 4백만원, 사후관리비 5천5백만원), 사회적경제사업비 3억9천7백만원, 인건비 8억2천8백만원, 관리운영비 1억5천3백만원, 위탁금 상환금 9억4천3백만원⁶⁾

※ 사회연대은행과 신나는조합 모두 매출액 규모 대비 금융사업과 지원사업의 비중이 6:4임에도 전체 인력 중 사회적금융 인력 비중이 낮음

- 사회연대은행 : 직원 30명 중 사회적금융 담당 10명, 나머지는 비금융사업
- 신나는조합 : 직원 25명 중 사회적금융 담당 5명 뿐
- 사회투자기금의 경우 사회적금융 위탁업무와 관련된 운영비가 제공되지 않음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4년에 15%를 제공하고 있으나 운영비 총당 불가하여 지원업무 위탁사업이나 연구용역 등으로 관련 비용 보전 중

○ 18년 계획

-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 5천만원으로 변경

(3) 신탁

○ 사업 개요

- 지역에 기반하여 사회적경제기업들에 자금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회적금융 중

6) 신나는조합 세입세출예산 세부내역.

개기관

- 조합원들이 상호부조 원리에 입각하여 공동이익을 구현하는 상호금융기관 또는 금융협동조합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전통적 금융기관에 비해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으로서의 잠재성이 큼
- 예대 기능을 겸비한다는 점에서 중간지원조직형 사회적금융 중개기관들에 비해 자금조달 및 잠재적 자금공급자들과의 접촉면에서 유리함
- 탈상호화과정으로 전통적 금융기관과의 차별성을 상실했으나 지역사회 및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의 금융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임
- 대표적 대출상품
 - : 상생협력 대출, 사회적경제조직임직원 대출,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대출

○ 운용 현황 및 성과

① 신탁중앙회

- 상생협력대출 :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생활협동조합 등 각종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상품
 - 대출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 대출금리 : 최저 3.5%로 제공
 - 대출상한 : 신용의 경우 5천만원, 담보의 경우 5억원
- 사회적경제조직 임직원대출
 - : 사회적경제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생활자금이나 주택자금을 대출하는 상품
 - 신용은 7천만원 이내, 담보는 5억원 이내에서 융자 제공

② 지역 신탁

- 서울 소재 신탁 중 사회적금융에 적극적인 곳 : 북서울신탁, 동작신탁, 논골신탁
 - 16년 대출건수 : 북서울신탁 81건(사투기금: 19건, 자체기금: 62건), 동작신탁 22건(사투기금 15건, 7건), 논골신탁 6건(사투기금 6건)
 - 16년 대출금액 : 북서울신탁 44억원(사투기금: 9억원, 자체기금: 35억원), 동작신탁 17억7천만원(사투기금 13억7천만원, 4억3백만원), 논골신탁 5천백만원(5천6백만원)⁷⁾
- 북서울신탁

7) 이성수(2016), 민간주도 지역기반 사회적금융의 현황과 과제, 2016년 지역기반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 토론회

-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이나 가치 있는 프로젝트를 후원할 수 있도록 오마이컴퍼니와 함께 14년 동북4구 크라우드펀딩 대회를 공동 개최하여 1천8백 이상의 자금을 유치하는 등 사회적경제조직체들과 적극적으로 제휴·협력을 하며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연결을 주도함
- 북서울신탁의 자금을 1:1로 매칭하여 지역아동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짜장데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캠페인에 펀딩하는 조건으로 3.7% 적금상품을 제공하는 소소한적금 등 지역 학교와 협약을 맺어 금융교육을 받은 고등학생들이 제안하는 적금상품을 실제 운용함
- 2016년 한 해 동안 77건의 활동을 통해 1천8백만원의 비영리사업을 벌임
- 동작신탁
 - 재무제표 취약·무담보 협동조합이라도 협동조합의 취지에 맞게 운영, 대표자의 지가 확고한 경우 사회적경제활성화대출 및 상생협력대출 등을 통한 저리 상품 제공, 자체 개발한 회계 프로그램 등 비금융서비스도 동시 제공
 -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자 누적금액 : 약 28억(2017.5 기준)
 - 주택협동조합입주자 전용대출 등 마이크로파이낸스 상품 개발중
 - 한국사회혁신금융과의 업무제휴 등 사회적금융 중개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업 역량 및 효과 제고
 - 지역단위의 비영리대안금고로서 청년자조금융 육성사업
 - : 조합원 30인 이상의 자조금융이나 10인 이상의 자조모임에 팀당 5백만원 등의 재정지원 및 교육, 운영전산시스템 지원
- 논골신탁
 - 블랙앤업구정, 옷과 사람들이라는 노동자생산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출자금 혹은 운영자금 대출·지원, 성동두레생협의 경우 직접출자에 더해 조합출자금 대출 및 생협 초기 신탁 건물 내 무료 판매공간 제공
 - 17년 한국사회투자자와 계약(2억원)하여 성동구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7500만원 정도의 대출사업 집행, 대부분 신용대출로 진행
 - 13년부터 시민사회기금인 성동협동기금을 조성하여 금융사업 외에 주민자치 조직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확장에 기여⁸⁾
 - 17년 성동구가 소풍·HGI·크레비스파트너스·비플러스·논골신탁 등 다양한 사회적금융 중개기관들과 성동협력기금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
 - 총 13억원 규모 (성동구 10억원 + 민간 임팩트투자회사들 3억원 지원)

8) 한국사회투자지원재단(2015), <기획취재-지역순환경제를 만드는 씨앗 '공동체 기금'(2)> 금융을 넘는 마을 만들기: 논골 신용협동조합.

- 서울숲 주변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공익성 및 공공부문 학습효과를 중심으로 평가·선정한 후 2% 이하의 금리로 융자⁹⁾

○ 한계

- 신탁 중앙회의 여신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일반금융권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여 대출심사를 진행하게 되는 데 따른 진입장벽 → 상생협력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용함
- 금감원의 여신규정, 인적보증의 문제 등이 얹혀있어 신탁자체에서 상품을 만들어 공급하기 보다는 사회투자기금과 같은 정책자금과 결합하는 상품을 고민 중

○ 18년 계획

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업

- 기금조성
 - 재정지원회계 잉여금 활용
 - : 17년말 중앙회 결손보전이 확실시 되어 재정지원자금(2600억원) 운용수익 처분방법 결정 필요, 운용수익을 사회적경제협력기금으로 활용(연간 약 40억원)
 - 예금보험료 인하분 일부를 기금으로 출현
 - : 유사업권 중 최고수준인 예금보험료(0.25%)율을 타 금융권 수준으로 인하 하여 절감된 조합 비용 중 일부(20%)를 재단에 출현·사회적금융 재원으로 활용
 - 중앙회 잉여금 일부를 기금으로 출현
 - : 매년 중앙회 사업이익 중 일부(10%)를 출현(연간 약 30억~100억원 조성)
- 전용상품 : 3개 트랙의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상품 개발
 - 일반계정 : 기존 대출조건을 완화한 시장성 사회적금융
 - 보증대출 : 기금을 활용한 보증부 대출 도입 검토
 - 정책대출 : 외부자금(지자체, 정책자금 등)과 연계 대출
- 임팩트 금융 추진
 - 환경·에너지·적정기술 등 낮은 재무적 수익률이 낮고 리스크는 높은 반면 사회적 임팩트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직접 투자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햇빛발전소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등)
- 인내자본 기능
 - 지속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 선별 후 안정화 단계 도달까지 장기간(10

9) 서울엔(2017), 성동구, 성동협력기금 조성 협약식 열어, 2017. 02. 16.

년) 원금 상환 유예

② 사회적 경제기업 설립·운영 지원

- 신탁사회적금융센터 구축
 - 커뮤니티 구축 및 지원, 경영지원, 운영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전반에 대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③ 사회적 자본 형성 지원

- 사회적경제인재개발원 설치
 - 현 신탁연수원에 부설로 설치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들의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역할 수행

(4)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한기협) 공제사업단

○ 사업 개요

- 사회적기업이 납부한 공제부금, 한국수출입은행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토대로 단기운영자금대출, 장기대출, 사회적경제종사자 소액대출 제공
 - 기금에 가입한 사회적기업의 도산 방지를 위한 공제금 대출
 - 기금에 가입한 사회적기업의 공동 구매 및 사업 자금의 지원
 - 사회적기업 종사자에 대한 무이자 소액대출(추가)
 - 부대 사업 및 기금의 운용 관리
 - 공제금 대출 및 운용 공제사업단 직접 관리
-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및 성장지원 등 중간지원조직으로 사업영역 확장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위탁 운영
 - 한국수출입은행의 지원 하에 예비사회적기업 희망씨앗 전파사업과 예비사회적기업 희망일터 지원사업 수행

○ 운용 현황 및 성과

- 공제기금 개요
 - 2017년 7월 기준, 총 23억원의 기금 조성
 - 부금 총액 : 13억원
 - 가입 기업 수 : 160개 이상
 - 누적기업대출금액은 39억여 원, 누적개인대출금액은 3억 2천여 원

- 누적종사자소액대출 건수는 29건, 누적 47개 기업에게 기업대출

① 사회적경제종사자 소액대출

- 지원 대상 : 서울소재 사회적경제 조직 내 재직중이며, 사회적경제 조직 근무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인 (저소득) 종사자
- 지원 내용 : 생계안정자금 최대 500만원, 대환대출자금 최대 1,000만원, 일대일 종합 재무상담 및 생활경제 상담(25만원 상당)
- 금리 : 무이자 ~ 최대 3.5%

표 3-6. 사회적경제종사자 소액대출 금리

	생계안정자금	고리이자 전환대출 자금
최저생계비 200% 이하	무이자	3.5% (월평균 이자 부담액 7,622원*)
최저생계비 200% 초과	2.5% (월평균 이자 부담액 5,418원) ※공제기금 가입사는 1% 금리 우대	3.5% (월평균 이자 부담액 7,622원)

*대출금액 500만원, 36개월 상환 기준

※ 2017년 11월부터 서울지역 사회적경제종사자 대환대출 금리 3% 혜택 제공

- 상환기간 : 최대 36개월 이내 균등분할 상환
- 상환방식 : 월급 원천 징수(당사자와 기업 간 동의하 급여차감상환)

② 장·단기자금대출

표 3-7. 한기협 공제사업단 자금대출

구분	단기운영자금대출	장기자금대출
대출자격	공제부금 4회차 납부 후(만 3개월 경과 후)	
대출기간	1년 이내	최대 6년 이내
대출종류 및 한도	순부금잔액 이내대출	신청 후 3일 이내 대출금 지급
	신용대출 (무보증)	납부부금총액의 최고 3배
	담보대출*	납부부금총액의 최고 5배 (후담보·매출채권담보 설정가능)
대출이율 **	순부금잔액 이내	연 2%
	순부금잔액 초과	연 3% 연 3.75%
상환조건***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기본은 1년 거치 4년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심사 통해 조건 결정
연체이율	연 15%

*장기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 평가에 의해 최대 0.3% 이자우대

**3년 고정금리, 3년 이후 변동금리

***조기상환시 수수료 등 불이익 없음

※순부금잔액 : 납부한부금총액 - 총대출금잔액

※순부금잔액 초과 대출금의 경우 초과 대출금의 0.5%를 공제안정화기금으로 납부

○ 18년 계획

- 기업단체보험 시행 계획

(5) 한국사회혁신금융

○ 사업 개요

- 기금조성을 통한 직접자금지원 및 금융데이터기반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품·서비스 개발을 통해 사회혁신기업의 금융접근성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
- 주요 사업
 - 기금 운용 : 사회혁신기금, 지역기금, 자산화 지원기금(예정)
 - 컨설팅 및 교육 : 재무기획, 수익성분석, 자금조달 및 운용 등
 - 연구개발 : 기업평가정보 제공, IT시스템 제공, 연구용역

○ 운용 현황 및 성과

① 기금운용

- 사회혁신기금
 - : 사회혁신기업의 사회적자본을 기반으로 공제기금 조성 및 운영
 - 2018년 1월 기준, 회원사 출자금, 서울시 기금 매칭, 자체 자본금 등을 바탕으로 22억원의 기금 조성
 - 출자금 총액 : 4.5/3.5억원 (약정액/실입금액)
 - 가입 기업 수 : 124개
 - 17년 기업대출 누적금액 24억 6천만원, 누적대출 건수 93건(상환완료 47건)
 - 무담보 무보증 신용대출(4개 상품)
 - 출자금 10배, 연이율 3%, 대출기간 2년 이내

- 지역기금

- 지역 기반의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을 당사자들과 공동 운영
 - 광진협동기금 : 서울시 광진구,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와 공동 운영
 - 대구사회적경제혁신기금 : 대구시, 대구사회적기업 협의회, 커뮤니티경제로부 터 위탁 운영
 - 가톨릭사회경제연합 발전기금 등

- ② 컨설팅 및 교육

- 컨설팅 서비스 분야 : 재무진단, 재무계획, 자금조달, 수익성 분석
- 재무 및 금융 교육 프로그램
 - 사회적 금융기관, 정책 및 제도 이해
 - 자금조달 : 정책자금 조달, 임팩트 투자 유치

- ③ 연구개발

- 사회적경제에 알맞은 기업평가시스템 개발
 - 17년 상반기 서울시 혁신형 사업에 선정되어 개발비를 지원받고 있음
- 풀뿌리 기금 운영을 위한 IT솔루션 개발 및 제공
 - 지역기금들의 관리시스템 구축
- 기금 운용관련 연구용역
 - 서울시 사회적 금융 발전방안 수립(서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7년)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영계획 수립(따복공동체지원센터, 17년)
 - 사회적기업공제기업 활성화 방안 수립(서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6년) 등

- 향후 계획

- 사회적가치 및 평판가치를 더한 기업평가시스템 구축
 - 목표 : 협업체계/시스템 구축 완료(2018) → 평가정보를 통해 수익창출(2019)
 - 기업평가모형 개발
 - 사회적경제기업을 분석하기 위한 기업정보시스템 구축
 - 데이터베이스(재무평가, 사회적 가치, 평판가치 등) 구축 및 활용을 위한 기관 협업 강화
 - 금융거래, 사업심사 등을 위한 평가보고서 제공
- 사회적 기금 운용 확대
 - 사회혁신기금 목표: 20억원(2017) → 40억원(2018) → 60억원(2019)
 - 지역기금 목표: 70백만원(2017) → 2억원(2018) → 10억원(2019)

- 자산화 지원기금 조성 및 운영
 - 목표 : 40억원(2018) → 80억원(2019)
 - 공동체주택,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 : 물건 확보를 위한 브릿지론(계약금 용도), 장기대출상품 출시(2018)
 - 지역자산화, 시민자산화를 지원하기 위한 복합투자상품 개발
 - : 세운자산화, 광진구 지역자산화 사업 지원(2018)
- 기금운용 경험을 토대로 타 기금 운영관련 컨설팅
 - 목표 : 50백만원(2017) → 50백만원(2018) → 50백만원(2019)
- 체계적인 기업육성 프로그램 운영
 - 재무분야 컨설팅 용역 및 자문 수행
 - 목표 : 30백만원(2017) → 70백만원(2018) → 1억원(2019)
 - 재무 및 금융 분야 교육 수행
 - 목표 : 9백만원(2017) → 20백만원(2018) → 30백만원(2019)
 - 사회적금융 상담센터 운영
 - 사회혁신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포탈 구축 및 운영(2018)
 - 사회혁신기업을 위한 오프라인 상담을 위한 거점 마련 및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한 방문상담 프로그램 운영(2018)

2. 서울시 자금공급 추정 및 예측(향후 5년)

1) 주요 가정

- 서울시 공적기금 공급액(보증/융자)을 전체 공급액의 30% 수준으로 가정함
 - 17년 11월 15일 발표된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¹⁰⁾에 따르면, 전체 (예비)사회적기업의 15.9%, 협동조합의 24.3%, 마을기업의 6.7%, 자활기업의 11.8%가 서울에 분포해 있음¹¹⁾
 - 즉, 전체 사회적경제기업의 20.5%가 서울에 분포해 있음
 - 대부분의 지원기관이 서울에 위치해 있고, 지원사업의 서울시 집중도가 높은 것을 감안하여 30% 수준으로 가정함

10) 신용보증기금(2017.11.15)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에 '[붙임1] 사회적경제기업 지역별 분포 현황'으로 첨부됨

11) 사회적기업·협동조합 '17.8월, 예비사회적기업 '17.5월, 마을기업 '16년, 자활기업 '16.2월 현재 기준

- 투자대상의 서울시 집중도가 높다고 가정하여 서울시 공적기금 공급액(투자)을 전체 공급액의 50% 수준으로 가정함

2) 서울시 자금공급 예측 결과

- 앞서 조사한 기관별 자금공급계획들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에 공급될 자금액을 예측하면 다음 표 3-8과 같음
- 5년간 자금공급은 공적기금 3,375억원, 지자체기금 1,015억원, 민간기금 375억원 등 총 4,765억원 수준임

표 3-8. 향후 5년간 서울시 자금공급액 예측

구분		지원 형태	실적	향후 5년 계획 (2018~2022년)	
				전체	서울시
공적 기금	신용보증기금	보증	61억 (2012년 이후)	5,000억원	1,500억원(30%)
	중소기업 진흥공단	융자	200억원 (2017년)	2,750억원	825억원(30%)
	모태펀드	투자	180억원 (11~15년)	800억원	400억원(50%)
	임팩트펀드		-	1,000억원	500억원(50%)
	사회투자펀드		-	300억원	150억원(50%)
	합계			9,8660억원	3,375억원
지자체 기금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융자	730억원 (13~16년)	1,000억원	1000억원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2.4억원 (2017년)	15억원	15억원
	합계			1,015억원	1,015억원
민간 기금	신협	융자	62억원 (2016년)	500억원	250억원(50%)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	250억원	125억원(50%)
	합계			750억원	375억원
총합계				11,625억원	4,765억원

○ 신용보증기금

- 실적 : 2012년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제도 도입 이후 61억원의 보증 공급
- 자금공급액 예측(향후 5년)
 - 기업당 보증한도 3억원으로 확대
 - 마을기업, 자활기업 보증 신상품 출시 (기업당 보증한도 1억원 이내)
 - 10년 이상의 장기상품 운영
 -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 신설하여 22년까지 최대 5000억원 보증 공급

○ 중소기업진흥공단

- 고용창출기업 가산점 확대로 사회적기업에 유리
- 중소기업 정책자금 총액 대출목표
: (16년) 106억원(실적) → (17년) 200억원 → (18년) 350억원
- 2018년 예산 350억원, 매년 100억 원씩 증가 가정

○ 모태펀드

- 실적 : 11~15년 동안 총 180억여 원 규모의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 2018년 예산 160억원, 5년간 동일한 수준 유지 가정

○ 임팩트펀드(중소벤처기업부) 및 사회투자펀드(금융위원회)

- 민간 임팩트투자 펀드는 실적에서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임팩트펀드 예산 : 1000억원
- 금융위원회의 2018년 임팩트펀드(사회투자펀드) 예산 : 300억원
- 5년 이내에 추가 펀드 조성은 안된다고 가정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 실적 : 서울시 출연 550억 원 + 민간기금유치 180억여 원
- 2018년 예산 170억여 원
- 전체 기금 규모를 1000억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 실적 : 17년 총 2.4억원 융자
- 2018년 융자사업 예산 3억원, 5년간 동일한 수준 유지 가정

○ 신탁

- 실적 : 북서울신탁 44억 원, 동작신탁 18억여 원 등(2016년)
- 재정지원회계 잉여금, 중앙회 잉여금, 예금보험료 인하분 일부 기금 출현 등을 통해서 매년 100억원씩 기금 조성 추정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한국사회혁신금융 등
- 신탁의 50% 수준으로 가정

3. 서울시 자금수요·공급 매칭 분석

1) 부족자금 분석

- 향후 5년간 예측한 서울시 자금공급량은 총 수요의 20~40% 수준에 그침
- 향후 5년간 예측한 서울시 총 자금수요는 1조 1,800억 원 ~ 2조 3,800억 원
- 향후 5년간 예측한 서울시 총 자금공급은 4,765억 원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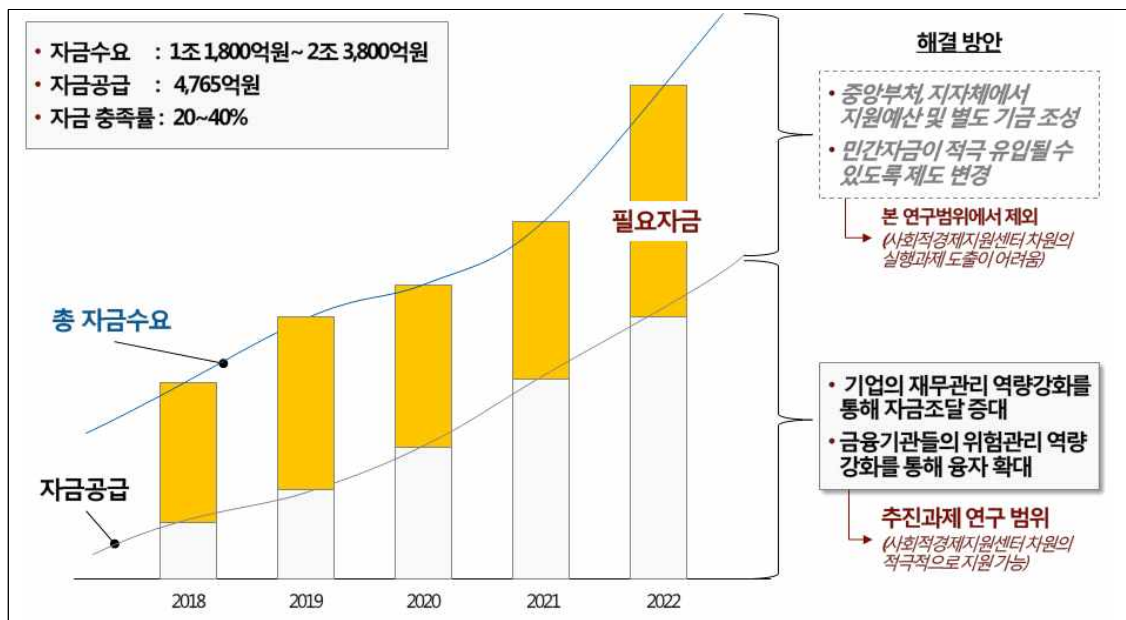


그림 3-2. 향후 5년간 자금 충족률

- 자금공급 자체를 증대하기 위한 방안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차원에서 추진할 만한 과제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범위에서 제외함

- 중앙부처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 예산을 편성하거나 신규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해야 하므로 서울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차원의 과제를 도출하기 어려움
- 서울시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사회투자기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과제를 도출하기 어려움

○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의 한계점을 파악한 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차원에서 자금수요와 공급 매칭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진과제(본 연구범위)를 정의하고자 함

- 정책 변화로 공적자금 중심으로 자금공급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자금집행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됨
- 따라서 비교적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필요자금이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 사회적금융이 발전하기 위한 주요 당면 과제임

2) 자금수요자 한계점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애로요인

- 자금조달 애로요인의 구분¹²⁾
 - 비적격성 요인
 - : 담보·보증, 재무·사업가치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인한 심사과정에서의 불이익
 - 이용불가 요인
 - :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전성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신청자격 제한 및 사회적경제 맞춤형 상품 부족, 사회적가치 평가기준 부재 등으로 인한 원천적 이용 배제
 - 금융문맹요인
 - : 서류제출 과다, 낮은 접근성, 관련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이용곤란
 - 자금조달여력 훼손요인
 - : 단기자금 위주의 상품구조 및 장기 인내자본 부재에서 비롯된 개인차입 및 대부업체 고금리대출 이용에 따른 추가적 자금조달여력 훼손
- 아래 표에 따르면, 담보·보증부담, 재무성과·사업가치 입증 등 비적격성 요소와 서류제출 과다, 상담창구 부족 등 금융문맹요소가 주요함

12) 박종찬(2015),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용가능한 금융상품들의 이해, 사회적 금융과 기금의 이해, 사회적기금구축포럼, 2015년 10월, 충남연구원

표 3-9. 사회적경제 자금조달 애로사항¹³⁾

(단위: %)

구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합계
담보 및 보증부담	25.5	28.3	21.4	22.3	25.5
서류제출 과다	17.4	19.7	28.6	24.5	20.3
재무성과 입증	18.1	18.9	7.1	10.6	16.1
사업가치 입증	11.4	11.0	14.3	12.8	11.7
상담창구 부족	10.1	8.7	14.3	7.4	9.1
소요기간	10.1	7.1	7.1	10.6	9.1
투자방식·조건협상	4.0	0.8	0.0	5.3	3.1
상환기간	1.3	3.1	7.2	3.2	2.6
기타	2.1	2.4	0.0	3.3	2.5
합계	100	100	100	100	100

(1) 담보 및 보증 부담

- 한국사회투자가 발표한 연구¹⁴⁾에 따르면, 대출시 물적 담보제공 가능여부를 묻는 질문에 절반 이상인 63.3%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물적 담보 제공 여력이 취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사회적경제기업이 선호하는 자금조달처가 정책자금, 사회적금융기관에 집중되는 원인으로 해석됨
- 물적담보를 대신할 수 있는 수단을 묻는 질문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사회적가치를 대표적으로 꼽음. 이외에 자사가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이나 특허, 사업의 발전가능성, (사회적기업 경영공시 참여를 통한)경영 투명성 등의 방안을 건의함
- 장기적으로 담보 제공 범위를 확장하여 각 사회적경제기업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까지도 담보의 범위에 포함시키거나 사회적가치를 평가하여 금리 혜택을 주는 방안 고려 필요

(2) 금융문맹성

- 정보접근성
 - 소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사회투자기금과 같은 정책자금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통합적 안내기관이 필요함

13) 한국사회투자(2014)

14) 한국사회투자, 2016,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자금수요조사 및 정책자금 평가연구, 2016년, 사회적금융개발연구원

○ 서류 및 절차 간소화

- 특히 사회복지법인에서 출자하여 만들어진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경우, 용자 시 법인의 허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작성이나 용자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작업이 과다하여 단기소액용자 수요가 있을 시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움

(3) 비적격성

○ 재무성과 입증 어려움

- 대부분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재무성과, 경영진의 역량, 사업성과 불투명을 이유로 서류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음, 신탁의 경우 중앙회의 여신규정에 의해 대다수가 걸러짐

○ 재무관리 교육 및 전문 인력 배치

- 재무담당 직원의 부족으로 재무 절차 및 관리 관련 교육이 절실함

○ 대부분의 사회적경제기업은 큰 자금보다 지역 중심의 투융자 및 컨설팅, 각종 자원연계를 통한 서비스 확장을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함

3) 자금공급자 한계점

○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이 부재하여 위험관리가 어려우므로 자금공급이 보수적으로 이루어짐

-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 심사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재무적 가치만으로 평가함
- 기업의 미션과 운영형태가 사회적 가치증대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의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 필요

○ 재무적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 개발과 이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량강화 필요

-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가 자금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지금의 시장 구조에서 점차 민간 자금이 확대되어 자율적인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노력 필요
 - 17년 11월 15일 발표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추진방향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정부재정과 공공재원을 중심으로 대출, 보증 등의 단순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초기단계임
 - 사회적금융의 공급자가 외부 투자자들, 특히 정책자금에 의해 주로 형성됨
 - 초기단계임을 감안하여 생태계 구축과 함께 점진적 금융지원 확대 추진 필요
- 자율적이고 건전한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민간기금 및 자조기금 활성화 필요

제4장 선행연구 및 정책 분석

1. 서울시 사회적금융 관련 선행연구 분석
 2. 서울시 사회적금융 관련 정책 분석
-

제4장 선행연구 및 정책 분석

1. 서울시 사회적금융 관련 선행연구 분석

1) 사회적금융 이해관계자그룹의 문제의식

- 사회적경제관련 제도 도입 및 담론 확산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회적 금융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폭되어옴
- 사회적금융 활성화의 선도적 사례로서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이 여러 차례 연구됨
- 사회투자기금 운용에 관한 연구 및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정리한 표¹⁵⁾를 아래 표 4-1과 같이 이해관계자그룹별, 과제별로 재가공함
 - 선행연구들의 경우 사회적 금융 일반에 대한 문제의식 수준에서 문제점 및 과제들이 정리되어옴. 이를 대상 구분하여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꾀하고자 함
 - 사회적 금융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금융 시스템의 핵심 주체별로 구분 지음
 - 자금공급자(정책담당자/투자자)
 - 사회적금융기관(사회적기금, 보증재단, 대출기관, 중개기관 등)
 - 자금수요자(사회적경제기업)

표 4-1. 사회적금융 이해관계자그룹의 문제의식

문제 및 어려운 점		이해관계자그룹		
		공급자	사회적 금융 기관	수요자
기반 조성	사회적경제조직의 자금 수요 증가			○
	기금 활용시 지원체계 미흡 - 사업 포트폴리오/ 계획서 작성 - 관련서류 준비		○	○
	사회적금융기관의 낮은 역량	○	○	○
	기금(투자금) 회수 가능성 및 원금 보존 가능성(기금	○		

15) 서울연구원: 2017; 한국사회투자, 2016a, 2016b;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

	안정성) 확보 필요			
	투자 수익(사회적 가치 실현) 가능성 판단 어려움	○		
	사회적가치평가체계 부재	○	○	○
	기금의 활용의 우선순위 정리 필요	○	○	
	부실채권의 처리방안 필요		○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분리 필요			○
사회적 금융 활성화	사회적금융 활용 미비 - 재원에 비해 지원대상 소수	○		
	기금운영의 유연성 확보 필요 - 정책자금의 이자율과 상환기간 경직성으로 업종별 특성 반영한 기금운영 제약 - 심사기준/담보설정/이자율/대상 등/목적/상환기간의 유연성		○	○
	소액단기자금 수요 존재		○	○
	사회적금융 정보 접근성 낮음			○
	투융자시 제약조건 많음	○	○	○
	무담보 대출 기금 필요		○	○
	소액단기자금 지원간소화 필요		○	○
	단기/중기/장기 상품 설계 필요		○	○
수요자 역량 강화	(사회적)금융 관련 교육 및 컨설팅 필요		○	○
	사회적경제조직의 짧은 사업력(short history)	○	○	
	사회적경제조직의 낮은 경영역량	○	○	

(1) 사회적금융 공급자 측면에서의 문제의식

- 한국의 경우, 현장의 필요를 기반으로 해야 할 사회적금융 설계가 정부정책 도입 및 추진의 방식으로 공급자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공급자 이해관계자 그룹의 대다수를 주도하여 정부주도적인 공급형태를 보임
 - 사회적금융이 정부의 정책집행 예산을 중심으로 설계·평가되어 두 가지 제약 요소를 낳음
 - 예산 특성상 예산의 불용액이 남지 않아야함

- 적재적소에 남용되지 않고 사용되어야함
 - 현실에서 더 크게 작용
 - 기금 사용의 진입장벽을 높임
- 기금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기금활용대상도 확대해야함
 -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가치평가체계를 도입하여 기금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함
 -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사업경력·경영역량 부재로 기금활용이 불가하므로 사회적가치평가체계 도입 및 관련 교육·컨설팅 지원 필요

(2) 사회적금융기관 측면에서의 문제의식

- 사회적금융 활용을 위한 기금운영 자율성이 높게 요구됨
 - 현재는 정부차원에서 사회적금융정책이 설계되고, 이를 위탁형태로 사회적금융기관들이 집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임
 - 사회적경제조직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율성 필요
 - 사회적금융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상품설계
 - 부실채권 처리방안
 - 금융서비스 외의 교육·컨설팅 제공

(3) 사회적금융 수요자(사회적경제조직) 측면에서의 문제의식

- 스스로의 사업역량 및 금융활용역량 향상 노력 필요하며 역량강화를 위한 자가진단, 외부평가, 사회적가치에 대한 주기적 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함

2) 이해관계자그룹별 사회적금융 활성화 과제

○ 앞서 언급된 사회적금융 이해관계자 그룹별 문제의식들의 해결을 위해서 제시된 제안 및 과제를 아래 표 4-2와 같이 정리함

표 4-2.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이해관계자그룹별 과제 역할분담¹⁶⁾

사회적금융 활성화 과제		이해관계자그룹		
		공급자	사회적 금융 기관	수요자
기 반 조 성	1. 생산적 금융으로 역할 재정립 - 손실부담자본(First loss capital) 제공 - 대손처리규정 신설	○	○	
	2. 사회적금융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	○	○
	3. 사회적가치평가시스템 구축	○	○	○
사 회 적 금 융 활 성 화	4. 사회적금융 진입 촉진 - 신용보증강화 - 이익공유제도 도입	○	○	○
	5. 관계형 금융 역량강화 - 사회적금융 관련 교육 및 컨설팅(monitoring) 제공	○	○	○
	6. 맞춤형 금융 상품 제공		○	○
	7. 신생기업(Start-up) 지원 확대 - 무보증 대출 - 소액단기대출 심사간소화		○	○
수 요 자 역 량 강 화	8. 재무역량 강화 - 사회적금융 인적자원 확보 -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	○
	9. 자조(연대)기금 활성화 -부문/지역등 활성화		○	○

16) 서울연구원: 2017; 한국사회투자, 2016a, 2016b;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

(1) 사회적금융 기반 조성

○ 생산적 금융으로 역할 재정립

- 정보 비대칭성 발생¹⁷⁾하에서 부채금융 운용방식은 대출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담보에 크게 의존하는 대출형태를 띄게 됨¹⁸⁾
 - 신생 사회적경제조직들의 경우 일반 기업금융시장의 거래 이력이 미미하고, 담보제공여력이 부재하여 기업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움
 - 담보를 지원하는 보증방식도 보증서 발급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사회적경제 현장으로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위험회피적, 보수적 기금운영방식에서 적극적 기금운영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자금 보증 및 자금 중개에 있어 일정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할 있는 장치로서 손실부담자본(First loss capital) 제공 필요
- 사회적금융 재원의 양적확대가 활용의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기금역할의 관점을 전환하는 등 생산적 금융으로의 역할 재정립이 선행되어야 함

○ 사회적금융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 16년 한국사회투자 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사회적금융의 활용에 관한 정보취득을 위한 상담, 교육, 컨설팅을 필요로 함¹⁹⁾
- 다양한 사회적금융 서비스를 ‘수요자관점’에서 ‘포괄적’인 서비스로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함
-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아우르는 사회적금융관련 정보 제공, 기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필요에 따른 기초 교육 및 개별 컨설팅 제공의 역할을 수행할 사회적금융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사회적가치평가시스템 구축

- 기금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평가체계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가치평가 체계의 도입이 필요함
 -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문제해결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제조직으로, 사회적가치

17) 수요자의 성공 및 성장 가능성이나 위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사전적으로 대출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18) 이순호, 2017, “은행의 ‘생산적 금융’역할 제공방안”, 금융브리프 26권 21호, 금융연구원

19) 한국사회투자, 2016.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자금수요조사 및 정책자금 평가연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투자를 위해 재무적 성과를 양보하는 경우가 발생함

-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금융은 일반 기업금융의 평가시스템에 사회적가치 평가를 추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함
- 서울시의 경우 사회투자기금 운영실적뿐만 아니라 서울신용보증재단, 한국사회투자, 한국사회혁신금융, 신나는 조합, 사회연대은행 등 다양한 사회적금융기관 운영실적을 보유한 만큼, 사회적가치평가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이 확인되므로²⁰⁾ 이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사회적가치평가시스템 도입의 선도주자로서 입지를 다져야함

(2) 사회적금융 활성화

○ 사회적금융 진입 촉진

- 신용보증강화
 - 사회적경제분야로의 자금 투자가 저조한 이유는 공급자 측면에서는 투자위험이 높고, 수요자의 측면에서는 보증이 충분하지 않아 사회적금융으로의 진입장벽이 높다는데 있음
 -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대한 특례보증 상품의 심사기준 변경, 보증료 감면, 이차보전등을 통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기능 강화 역할이 요구됨
 - 현재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재무상황에서는 별도의 추가부담 없이도 가능하므로 정책적 결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방안임²¹⁾
- 이익공유제도 도입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익공유형대출사업
 - : 투융자 대상 기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일정정도의 운용수익을 기금으로 회수하는 투융자 복합프로그램
 - 기금 활용의 다각화 및 활성화 방안이자 기금 재원증대 및 대상기업 성장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방안임

○ 관계형 금융 역량강화

-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짧은 이력, 대출심사를 위한 신용등급의 제한, 중복지원 금

20) 이상진, 2017, “민간기금 현황 및 기업평가시스템으로 발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금융 확충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기획재정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1) 서울연구원, 2017, 『서울시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지, 부실채권 불인정 등의 제한 요건으로 인해 담보력과 재무력 취약하여 금융이용이 쉽지않음²²⁾

- 사회적경제기업들과 함께 오랜 시간 다방면으로 관계를 맺고, 대출경험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축적하는 관계적 금융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
- 사회적금융 관련 교육 및 컨설팅(monitoring) 제공
 - 사회적금융종합지원 플랫폼을 통해서 신생 사회적경제기업에서부터 단순한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가치평가 고려와 도덕적 해이 방지, 재무적 부문의 멘토로서 기능하는 사회적금융기관을 매칭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감시(monitoring)와 컨설팅 병행을 도모하고, 성장단계별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을 꾀해야함.
 - 균질적인 멘토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멘토로서 기능할 사회적금융기관들에 대한 교육훈련 및 워크숍 등의 기획과 지원이 필요함
- 현재 취득한 정보들을 집적하여 사회적가치평가시스템의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도 필요함

○ 맞춤형 금융 상품 제공

- 현재의 사회적금융 상품들은 중앙정부나 서울시 등 공급자의 설계에 맞추어 공급되고 있음. 사회적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설계에 보편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수요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야 함
- 사회적금융기관에게 상품설계 권한을 일부양도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금융기관에 상품과 관련된 다양한 필요와 욕구 및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기능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 신생기업(Start-up) 지원 확대

- 사업계획정도밖에 제공하지 못하는 신생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현재의 투융자 시스템 하에서는 금융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함
- 반면 중소기업금융의 경우 신용이나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무담보 대출이나 소액 단기대출을 실시 중임.
- 사회적경제신생기업에게도 적절한 안전장치 및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만으로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22) 서울연구원, 2017, 『서울시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3) 수요자 역량 강화

○ 재무역량 강화

-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 현재의 정책자금의 경우 초창기 기업도 일정정도의 기업 이력이 있거나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할 경우 정책대상에서 배제되어 일반금융시장을 이용해야함
 - 사회적금융의 적절한 활용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일반 기업금융시장으로의 진출에 대비한 사회적경제기업 내부의 재무적 역량 강화 전략이 필요함
 - 사회적금융종합지원 플랫폼을 통한 사회적금융기관의 멘토 운용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 외에 재무적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지원 제공
- 사회적금융 인적자원 확보
 - 재무적 교육과 훈련을 위한 전문가 인력양성도 필요함²³⁾
- 사업적 역량 및 금융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자가진단, 외부평가, 주기적 사회적가치 평가 등에 참여할 유인 혹은 지원에 따른 참여의무 규정 마련

○ 자조(연대)기금 활성화

- 당사자들의 자조기금에 연동하여 공공자본 및 외부 자본기금을 출연함으로써 자조기금의 규모화 기여 및 장기적으로 자조(연대)기금 생태계 구축 도모
- 부문/지역 등 활성화
 - 사회적경제조직별 혹은 지역별 자조기금 형성을 장려하여 개별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적금융을 이용하는 환경 조성

2. 서울시 사회적금융 관련 정책 분석

1) 정부정책과 서울시 과제 비교 분석

○ 중앙정부 정책²⁴⁾과 선행연구 분석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비교하면 아래 표 4-3과 같음

23) 서울연구원, 2017, 『서울시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4) 일자리위원회, 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표 4-3. 사회적금융 활성화 과제 비교-중앙정부와 서울시

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금융접근성 제고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활성화과제
공적 금융제도 개선	신보 지신보의 보증지원 한도 확대	4. 사회적금융 진입 촉진 - 신용보증강화
	정책자금내 총액대출 목표 신설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 마련	3. 사회적가치평가시스템 구축
투자환경 개선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 확대 운용	
	사회성과연계채권을 활용한 사회성과보상사업 확대	
	사회적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투자기반 조성	
	우호적 조세환경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	
규제완화등 제도개선	신협·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출자 허용하는 신협법 개정추진	1. 생산적 금융으로 역할 재정립 - 투·융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투자조합원제도 도입방안 검토	

- 중앙정부의 경우 기반조성, 제도개선 등 공급자 중심의 과제가 주로 제시된 반면 서울시의 경우 기반조성, 사회적금융활성화, 수요자역량강화 세가지 측면에 있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기반조성 분야는 중앙정부 정책방향과 동일

- 사회적금융종합지원플랫폼, 맞춤형 금융 상품제공, 수요자 역량강화등 수요자 중심 접근을 시도하여 기금규모 및 제도적 진입장벽 개선을 꾀하는 것 뿐 아니라 실제 사회적금융 활용으로 이어지는 사회적금융 친화적 환경조성에 나서야함.

○ 사회적금융의 경우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푸쉬(Push)전략보다는 수요자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풀(Pull)전략적 접근을 통해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해야함

- 사회적금융기관 및 수요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사회적금융의 세부 설계

추진 필요

2)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개선사항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이 사회적금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금융역할모델 필요

- Levine. R.(2005)의 금융역할모델²⁵⁾.
 - 재화와 서비스의 원활한 교환 촉진
 - 저축 및 저축자금의 활용(자금중개)
 - 위험(risk)의 거래, 분산 및 관리 촉진,
 - 투자와 자본 배분에 대한 사전적 정보 생산,
 - 금융제공 후 투자 및 기업경영 감시(monitor) 등

→ 이에 비추어 사회적금융으로서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역할모델 재정립 필요

(1) 생산적금융으로의 개념 정립

○ 사회투자기금이 생산적 분야로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여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꾀해야함

○ 생산적 측면에서의 기금 활용 ⇒ 적극적 기금 활용

- 손실부담자본 제공
 - : 위험분산·관리촉진할 수 있도록 위험을 감수하는 금융역할 수행
 - 수행을 위한 대손처리규정 등의 마련 필요

(2) 사회적금융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 수요자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 및 사회적금융 활용 지원

- 사회적금융 플랫폼을 통해서 기초적인 사회적금융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포트폴리오 구성, 자금활용 및 상환계획의 마련, 관련 서류 등 제반 준비 등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의 재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병행

25) 이재복(2017)에서 재인용.

- 사회적금융기관들의 관계형 금융 형성을 위해서 사회적금융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장기적으로 향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지원

○ 사회적금융기관들의 연대와 협동을 통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 중개기관역할을 할 사회적금융기관들에게 정책적 지원을 통한 역할 부여
→ 사회적 금융 활용의 진입장벽 해결
-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자율성 및 운영의 유연성 부여

(3) 사회적가치 평가시스템 구축

○ 서울시의 경우 사회적금융 사업경험이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금융에 맞는 가치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시범사업 시도가 가능함

- 사회성과연계채권사업 등 참고할만한 사업을 수행해온 사회적금융기관들과 협업 및 지방정부 지원을 통해서 규모화, 타당성·보편성이 보장된 사회적가치평가 시스템 구축 시도 가능

○ 사회적가치평가 시스템 구축은 자금조성, 맞춤형금융상품 개발, 신생기업 지원 확대 등의 활성화에 토대가 될 것임

제5장 서울시 사회적금융 발전과제

1.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방안
 2. 사회적 금융기관의 투·융자 지원방안
-

제5장 서울시 사회적금융 발전과제

- 본 연구에서는 자금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사회적금융의 발전에 있어 효과적인 주요 과제라 판단하고, 자금수요자(기업)와 자금공급자(금융기관 등) 입장을 구분하여 이에 대한 통합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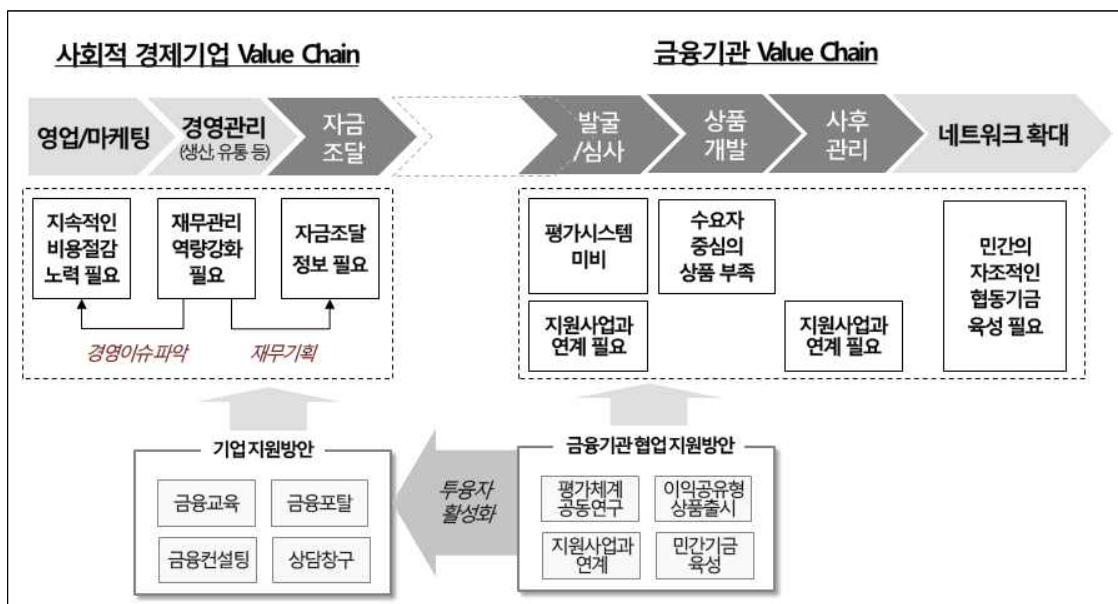


그림 5-1. 자금공급 및 수요의 문제점

- 사회적경제기업(자금수요자)은 재무관리역량 강화,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효율화, 금융정보 확보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필요자금을 조달해야 함
- 자금조달 업무(‘부족자금 인지-수단 탐색-금융기관 관계구축-자금 신청’)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정보수집, 투융자 상담, 재무교육, 재무 컨설팅 등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사회적금융기관(자금공급자)은 합리적인 평가체계 마련, 현장에 요구에 기반한 상품 개발, 타 지원사업과 연계한 금융서비스, 타기금과 연대를 통한 위험관리 강화 등을 통해 투융자를 확대해야 함
- 투융자 업무(‘발굴 및 심사-상품개발-사후관리-네트워크 확대’)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평가체계 공동연구, 이익공유형 융자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 컨설팅·교육

등의 타 지원사업과 연계, 타 민간기금과의 연계를 통한 위험관리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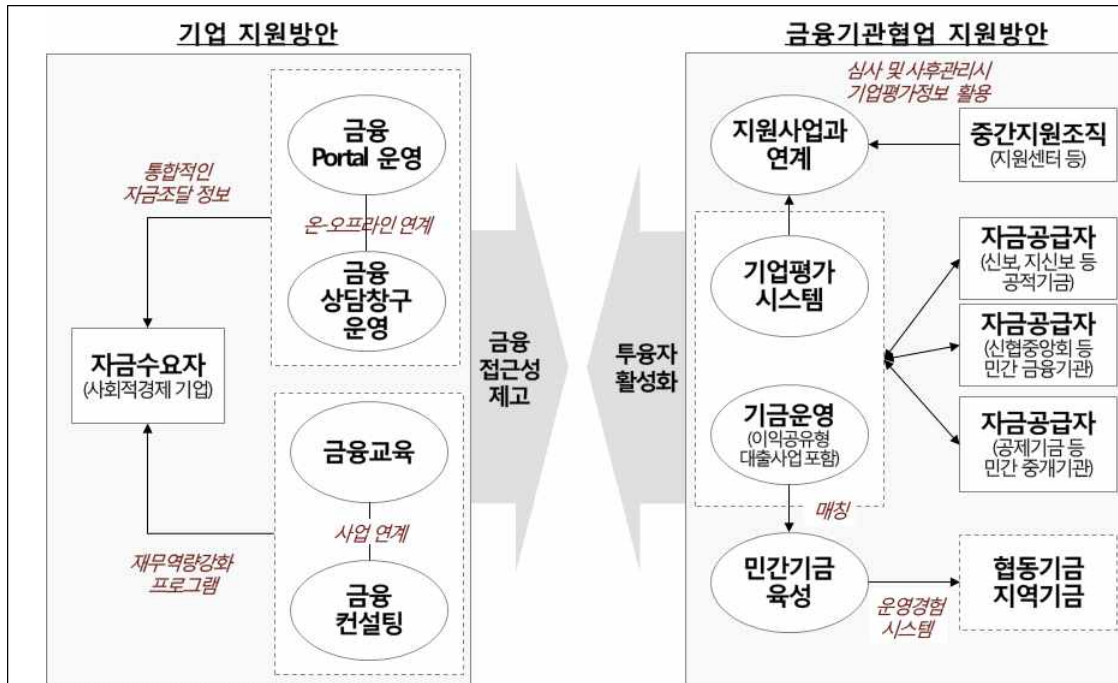


그림 5-2. 사회적금융 발전과제

1.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방안

1) 배경 및 목적

- 사회적경제 기업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성장하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고, 매출 및 자산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움
- 시중은행의 경우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표자 보증을 통해서 신용을 보강하는데, 다수의 사회적경제기업은 담보를 제공할만한 자산이 부재하거나, 대표자의 신용 등급이 낮아 시중은행에서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움
- 2014년 (재)한국사회투자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융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회적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로 특수관계인(대표자포함)이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또한 기존 금융시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으로 담보 및 보

증부담'(25.5%), '서류제출 과다'(20.3%) 등을 토로하고 있었음

- 이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조달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기업에 알맞은 자금조달 수단을 탐색할 수 있어야 하고, 금융기관별 심사기준 및 신청 절차를 이해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원을 총괄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웹사이트²⁶⁾'에 소개된 '사회적기업의 금융지원' 내용은 제한적임
 -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자금 대출,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소기업 진흥공단),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사회적기업 나눔보증(신용보증기금)의 공적자금만 간략히 소개하고 있음
 - 실제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나눔보증은 홍보가 미흡하고 심사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현장에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함
 - 향후 공적자금 중 모태펀드(중기부), 임팩트펀드(금융위), 사회투자펀드(중기부)를 통한 자금공급이 확대될 전망임
 - 이밖에 지역 내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부산시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조성한 기금, 서울시 성북구, 화성시 등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성한 기금도 마련되어 있음
 - 동작신협, 북서울신협 등 단위신협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대출 상품을 신설하여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신나는조합, 사회연대은행과 같은 비영리기관과 한국사회혁신금융의 사회혁신기금, 한기협 공제사업단과 같은 당사자들이 조성한 공제기금 또한 자금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기관별 심사기준 및 신청절차를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적시에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함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기별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 자금조달이 불가함
 - 신용보증기금은 업종별 한도가 다르고, 연도별로 가산점 항목이 변동되며, 지점별로

2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웹사이트 : http://www.socialenterprise.or.kr/entersupport/finance_loan1.do?dep1_kind=2

- 심사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금조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자본구조 개선, 명확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비전 제시, 담당자와 신뢰관계 구축 등을 통해서 심사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청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함

2) 자금조달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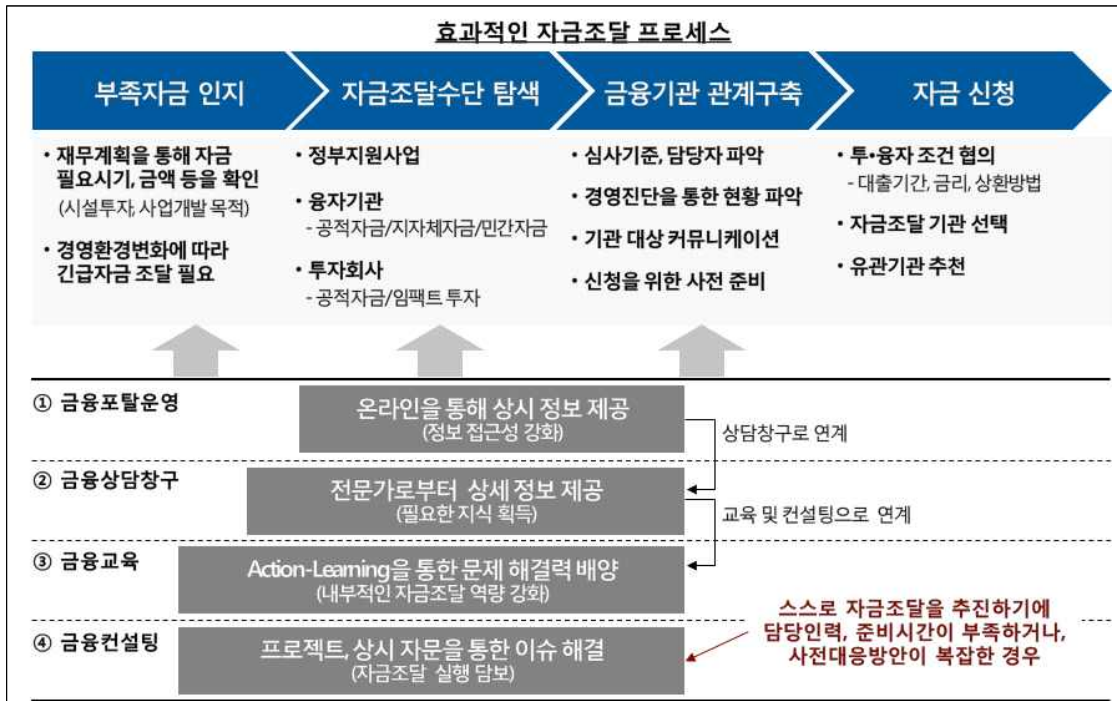


그림 5-2.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체계

- 활용가능한 자금조달방법을 탐색하는 비용을 줄이고, 기업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관별 담당자와 선제적으로 소통하면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자금조달수단을 탐색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금조달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을 운영하고, 상담전용 전화번호 개설(필요시 120 다산콜센터 연계방안 고려)하고, 오프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창구를 마련하도록 함
 - 신용등급 조회, 재무진단을 통해 해당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관별 심사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전문가 조언 제공
- 개별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이 포털 및 상담창구 운영, 재무교육, 재무컨설팅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차

원에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 자금조달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개발 및 지속적인 관리, 상담창구 운영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조직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움
-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체 보유한 자금을 재무교육, 재무 컨설팅을 수행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 ‘서울시 사회적금융허브 구축사업(가칭)’을 통해 민간 사회적금융 (중개)기관과 협업하여 기업들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자금조달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이 자체 개발하여 소유하도록 하고, 해당 포털의 지속적인 운영과 오프라인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게 일정한 서비스비용을 지급
-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에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무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확대·연계 하고, 신협중앙회,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등과 협업하여 대출 연계 또한 가능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임
-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한 실적, 수행기관 만족도 등을 매년 평가하여 사업성과를 높이고, 서울시의 우수사례가 타 지자체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함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례 분석]

제도권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및 영세자영업자에게 ‘상담-교육-컨설팅’을 연계하여 무담보 저리자금을 제공하고자 했던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례를 살펴봄

① 모집

- 서울시에서 모집홍보를 실시하되 사업수행기관별 자체홍보 실시

② 상담

- 대상기업 입증서류 확인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특별보증’ 신청기업 체크리스트 작성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상담신청서 작성
-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고객 작성)

- 신분증사본 앞뒷면 복사 및 신용정보 조회.회신 실시(사업수행기관 작성)
- 신용보증재단 담당자에 송부하여 보증가능여부 및 징구대상 금융거래 확인서 확인

③ 현장실사 및 선정

- 서류심사 : 신청기업 체크리스트 활용
- 기초사업성 평가
 - 부채비율(10), 자기자본비율(20), 사업경험(20), 사업계획 수립 및 실현가능성(40), 자격 및 기술보유/교육 및 훈련이수(15), 특례대상자(5) 등으로 판단하되 선정기준은 사업수행기관에서 자율판단
- 현장실사
 -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신청자 전원에게 대하여 사업담당자 1인, 창업(복지)전문가 1인이 사업능력 및 입지분석실시(사업능력, 입지분석관련 자료는 사업수행기관의 고유양식 이용)
 - 신청자가 투자금의 투자.조달내역 및 손익계산서 작성하되 신청자가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에서 작성가능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현장실사보고서를 사업수행기관이 작성(현장사진 2장)
- 선정심의
 - 사업수행기관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의 60%이상 동의(수행기관별 계량.비계량 판단기준 적용)
 - 선정심의위원회는 5인이상(창업 및 복지전문가, 수행기관 임.직원 등)이되 전체심의위원 중 창업 및 복지분야 전문가 50%이상 참여하도록 함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특별보증’ 추천서 발급
 - 사업수행기관에서 작성하며, 창업교육 이수여부 확인후 사업수행기관 직인날인하여 신용보증재단으로 송부

④ 창업교육 및 경제교육

- 사업수행기관별 창업교육 실시
 - 최소 8시간 이상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수행기관 자체교육은 6시간 이상으로 하고 서울시 경제교육 2시간 포함하여 실시
 - 교육내용은 사업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예비창업자와 기 창업자를 위해 사업에 대한 기초정보와 업태정보, 기본적인 재무, 금융교육을 반영하여 실시하여

야 함.

⑤ 보증추천

- 보증심사시 필요한 아래서류를 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에 송부
- 심사 서류일체
 - ① 신용보증신청서
 - ②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본증 사본 포함)
 -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거래확인서 전자발급 동의서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⑤ 대상기업 입증서류
 - ⑥ 거주지 및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자가인 경우 생략하되, 소유자가 친인척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유자와 대표와의 관계증빙자료 징구
 - 등본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실제거주지 임차계약서 징구
 - ⑦ 금융거래확인서
 - ⑧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특별보증 신청기업 체크리스트
 - ⑨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특별자금 추천서(별표 10)
 - 사업수행기관에서 자금신청접수일, 창업교육 이수여부, 추천서 발급일, 자기자금 등 보증심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목확인 철저
 - ⑩ 투자금의 투자·조달내역 및 손익계산서
 - ⑪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현장실사 결과보고서(현장사진 2매 첨부)

⑥ 신용보증

- 사업수행기관에서 서류접수 후 신용보증재단에서 제규정에 의거 업무처리
 - 보증심사 ➡ 약정체결 ➡ 보증실행

⑦ 대출실행 : 금융기관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거 업무처리

⑧ 사후관리

- 월 1회 현장방문 및 사후관리결과보고서 작성
 - 대출실행 후 3개월 시점부터 실시
 - 작성 후 신용보증재단 담당자에 송부

(1) 금융포탈 운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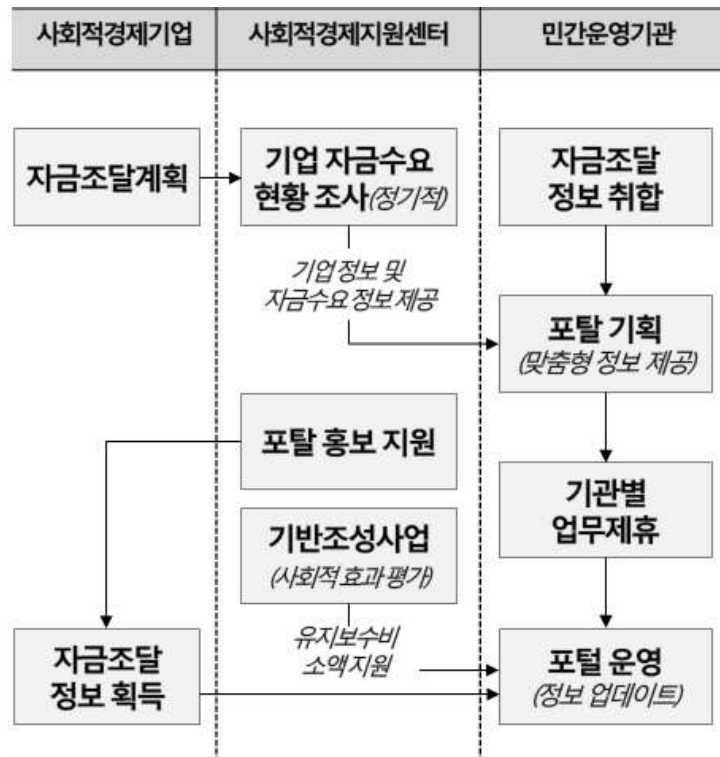


그림 5-3. 금융포탈 운영체계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민간 포탈운영기관의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금융 기반조성에 기여함
 - 기업현장에 적합한 자금조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정보 공유
 -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자금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 공유
 - 자금조달포탈이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만족도 조사, 포털 접속자수 등)하고, 사회적금융 기반조성사업을 통해서 운영비 일부 지원
- 사회적금융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 기관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포탈 시스템을 구축하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업하여 현장조직에 알맞은 콘텐츠를 기획 및 운영하도록 함
- 다양한 사회적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자격조건, 지원내용, 심사기준 등의 변동이 있을 때 즉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함(Push 방식)

○ 즉, 기업의 니즈에 알맞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며, 기관별 제휴를 통해 상품정보를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함

① 메인 화면

- 공적자금, 지자체기금, 민간자금으로 카테고리를 나누고, 검색 빈도수가 높은 상품정보 제공
- 인증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을 구분하여 조직형태별로 사전적으로 인지해야 할 콘텐츠 제공
- 기간별 이자 및 상환원금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계산기 제공

② 고객 친화적 상품추천 기능

- 대화 방식을 통한 고객 니즈 파악
- 추천 알고리즘을 적용한 맞춤형 상품정보 제공

③ 상품정보 화면

- 검색 시 필요금액, 신용등급을 입력하도록 하며, 신용등급을 모르는 경우 무료 신용등급 조회 기능 제공
- 기관별, 가입방식, 상환방식, 대출목적, 대출기간, 금리 등으로 조회 가능

④ 모바일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현



그림 5-4. 금융포탈 예시(Finda²⁷) 사례)

(2) 금융상담창구 운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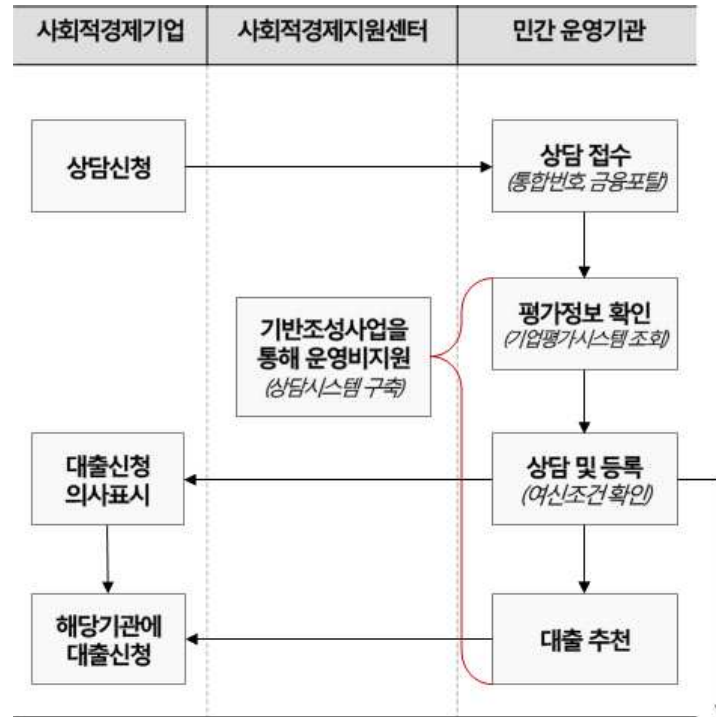


그림 5-5. 금융상담창구 운영체계

- 민간 운영기관은 금융포털, 기업평가시스템, 상담조회시스템을 활용하여 고객과의 상담 시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상담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 금융상담창구 업무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 고객이 창구에 내점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단체 번호 혹은 고유번호증, 단체대표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본인확인을 수행함
 -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기관은 기업평가시스템을 조회하여 기업정보를 확인함
 - 여신의 종류, 여신금액, 여신기간, 금리 또는 보증료를 등을 확인하되 금융포털을 활용하여 여신종류별 취급기관과 상품정보, 필요서류를 조회하여 고객에게 명세를 출력하여 교부함
 - 상담이 완료된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업명, 상담번호, 상담일자, 상담자 성명, 상담제목, 상담내용, 상담자 성명 등을 상담조회시스템에 입력함
 - 대출의사가 있는 기업의 경우, 대출신청금액, 대출종류, 기간, 상환방법, 금리종류,

외부감정 필요여부, 담보종류 등을 추가로 입력하고, 해당기관의 담당자에게 상담정보를 제공함(대출추천)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권역별 금융상담창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상담실적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촉진시킴
 - 민간 운영기관의 상담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도록 상담조회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되 금융포탈, 기업평가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도록 함

(3) 금융교육 지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금융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해당 민간 교육기관이 사회적금융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육과정이 기업의 자금조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
- 민간 교육기관은 Action-Learning방식을 통해 기업 현장의 실제 이슈를 스스로 진단·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배양되도록 기획해야 하며, 교육이수기업이 실제 자금관리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이해도를 높여 사회적 금융기관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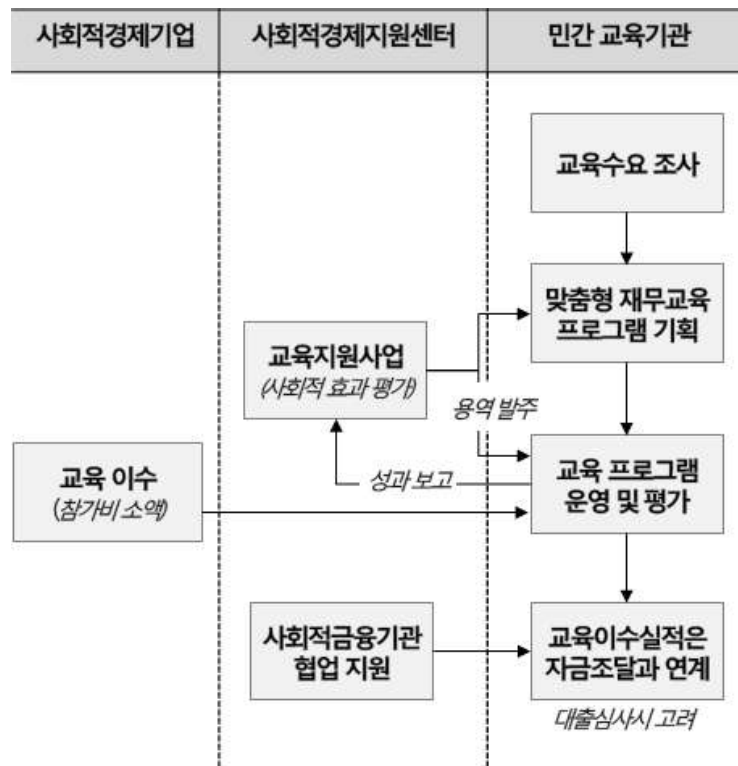


그림 5-6. 금융교육 운영체계

○ 교육 니즈 분석을 위해서 재무관리역량을 재무계획수립, 기업가치평가, 재무진단, 자금조달, 재무제표이해, 신용평가이해, 사회적금융이해의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²⁸⁾

- 기업의 사전 이해가 가장 부족하면서 가장 관심을 보인 분야는 재무계획 수립, 기업가치평가 부문이며, 재무진단, 자금 조달 부문의 경우 기업 운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기업들의 이해도가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표 5-1. 재무교육 중에서 가장 관심있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1위	재무계획수립	매출, 매출원가, 판관비, 순이익 추정
2위	기업가치평가	기업가치평가 방법과 사례알기
3위	재무진단	재무비율분석, 재무현황 파악
4위	사회적금융	사회적금융의 현황과 활용방안
5위	자금조달	자금조달수단별 특징과 한계, 사례알기
6위	재무제표 보기	재무제표 보기, 주요계정 파악
7위	신용평가	금융기관 대출심사기준 이해하기

표 5-2. 재무 교육 중에서 사전 이해가 가장 부족한 분야는 무엇입니까?

1위	재무계획수립	매출, 매출원가, 판관비, 순이익 추정
2위	기업가치평가	기업가치평가 방법과 사례알기
3위	자금조달	자금조달수단별 특징과 한계, 사례알기
4위	재무진단	재무비율분석, 재무현황 파악
5위	재무제표 보기	재무제표 보기, 주요계정 파악
6위	신용평가	금융기관 대출심사기준 이해하기
7위	사회적금융	사회적금융의 현황과 활용방안

○ 사회적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재무 교육을 이수한 기업은 추천을 통해서 대출심사를 간소화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를 유도

- 교육 프로그램은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재무, 회계, 금융에 있어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개발

28) 한국사회혁신금융이 실시한 교육니즈 조사결과 참고(17.9.25~10.10)

표 5-3. 재무 교육 프로그램 (예시)

구분	목적	방법
재무분석 역량강화	재무제표기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의 주요 계정 이해
	재무진단	- 재무진단방법론 - 재무비율 분석방법 - 재무진단 사례분석 - 재무진단 Tool 이해 및 실습
자금조달 강화	사회적 금융	- 사회적 금융 정책 및 제도 변화 - 사회적 금융기관 이해 - 협동금융, 크라우드펀딩, P2P 이해 등
	정책자금 활용	- 정책자금의 종류에 대한 이해도 증진 - 정책자금의 진행 절차에 대한 숙지 - 기업의 성장과정에 따른 정책자금 조달방안 - 정책자금의 조달을 위한 실무 Tip 이해 - 신용관리를 위한 10가지 방안 이해
	임팩트 투자	- 임팩트투자 개념과 용어 이해 - 국내·외 임팩트투자 동향 이해 - 임팩트투자 절차를 이해 - 임팩트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Tip
재무기획 역량강화	재무계획 수립	- 매출계획 수립방법론 - 매출 및 매출원가 추정하기 실습 - 비용 및 자금계획 수립방법론 - 인력, 투자, 자금조달계획 수립 실습

(4) 금융컨설팅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현금이 유입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충분한 운전자금이 없다면 핵심자원을 유지하기 어렵고, 충분한 투자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음

○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은 합리적인 재무계획을 수립하고, 적시에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회계적인 이슈들을 사전에 진단·해결해야 함

• 가수금, 가지급금 같은 임시 계정을 정리하고, 출자전환, 자본구조 개선 등을 통해 높

은 부채비율을 해결해야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재무관리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 재무제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다양한 회계 이슈에 노출되어 있어 불필요하게 기업가치가 평가절하 될 여지가 있음
- 구체적인 재무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다보니 긴급자금이 필요해짐
- 재무, 회계, 금융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 힘들다보니 자금 조달 및 운영이 어려워져 조직의 성장이 저해됨

○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재무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프로젝트 방식) 혹은 자문(멘토링 방식) 제공 필요

- 다양한 관점에서의 재무분석을 통해서 경영 이슈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
- 자금조달 방식을 이해하고 지속적 성장을 위해 기업에 알맞은 자금확보방안 마련
- 궁극적으로 기업 스스로 재무이슈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무관리 프로세스 정립 및 협업관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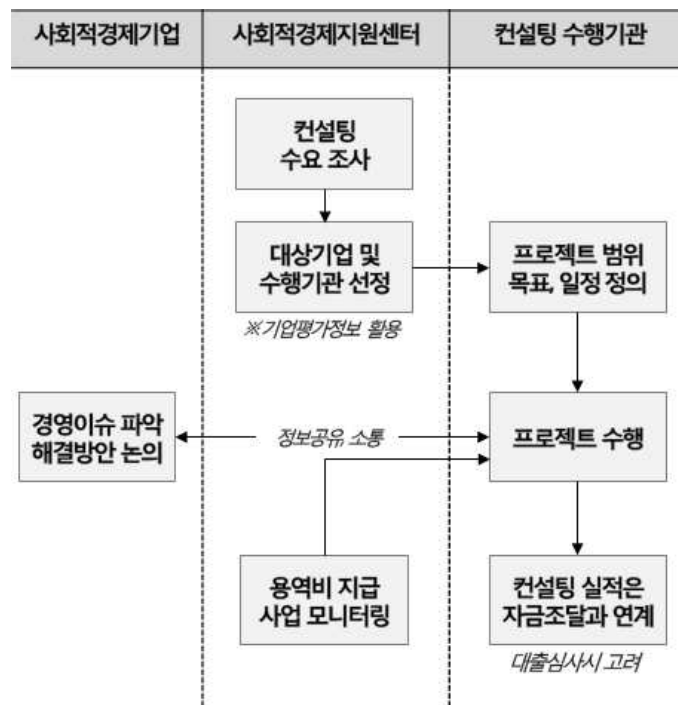


그림 5-7. 금융컨설팅 운영체계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금융컨설팅에 수요가 있는 기업과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컨설팅 회사를 선정하고, 수혜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함(기존 통합컨설팅 사업과 동일한 방식)
- 금융컨설팅 회사는 사회적금융기관과 협업하여 사전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 감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이 투용자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함
 - 컨설팅 산출물을 심사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대출심사를 간소화하고, 컨설팅을 통해 우수한 경영성과를 낸 기업의 경우 적절한 전략방향 수립 및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다 판단하여 심사 시 가산점 부여

표 5-4. 재무 컨설팅(예시)

구분	목적	방법
재무 진단	회계이슈 파악하고, 영업활동에서 개선과제 도출	- 현금흐름표 작성 (간접법) - 수익성, 성장성, 현금흐름, 유동성, 활동성, 안전성 측면에서 재무비율 분석 후 보고서 제공
재무 계획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 -신규사업 손익추정	- 사업별 매출계획 수립 - 인력, 투자, 자금조달에 관한 계획 수립 -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추정
자금 조달	-자금조달계획 필요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자본구조 개선	- 재무분석을 통해 재무비율 분석 - 감사, 증자 등의 유관된 프로세스 확인 및 감사비용, 증자금액 제언 - 투·융자 제안서 작성 지원
수익성 분석	-회계적인 이슈 파악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 -비용절감방안 마련	- 지점/사업별로 매출, 원가, 판매관비 추이 분석 - 손익분기점 분석 - 회계내역에 대한 적정성 검토

2. 사회적 금융기관의 투·융자 지원방안



그림 5-8. 사회적금융기관 협업지원체계

- 사회적금융기관들이 기업 평가데이터를 공유하고, 서울시 혁신형사업을 통해 신규 개발될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심사체계를 고도화하며, 기관별 개별시스템과 평가시스템이 연동될 수 있도록 공동연구를 지원함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기업정보 축적, 평가모형 개발과 관련하여 현장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사회가치등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센터의 타 지원사업과 연계방안을 구체적으로 기획, 실행함
- 자조기금, 지역기금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을 조성되는 기금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컨설팅 및 자금관리시스템 지원
 - 한국사회혁신금융은 청년연대은행 토당을 비롯한 자활공제조합연합회 산하 42개 공제기금에 자금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탁중앙회의 경우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별도 회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사회적금융기관이 이익공유형 대출사업을 확대하고, 해당 사업의 운영성과를 통해서 임팩트투자 또한 확대될 수 있도록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원함

1) 기업평가체계 공동연구

- 대부분의 사회적금융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정교화된 평가모형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융자가 어려움
-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회사에서는 중소기업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무평가보다는 정성적인 평가의 비중이 훨씬 높음
 - 대부분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영세한 편이기 때문에 재무정보만으로 채무불이행률을 판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움
 -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가 클수록, 이들의 평판가치가 우수할수록 사업 기반이 튼튼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평가 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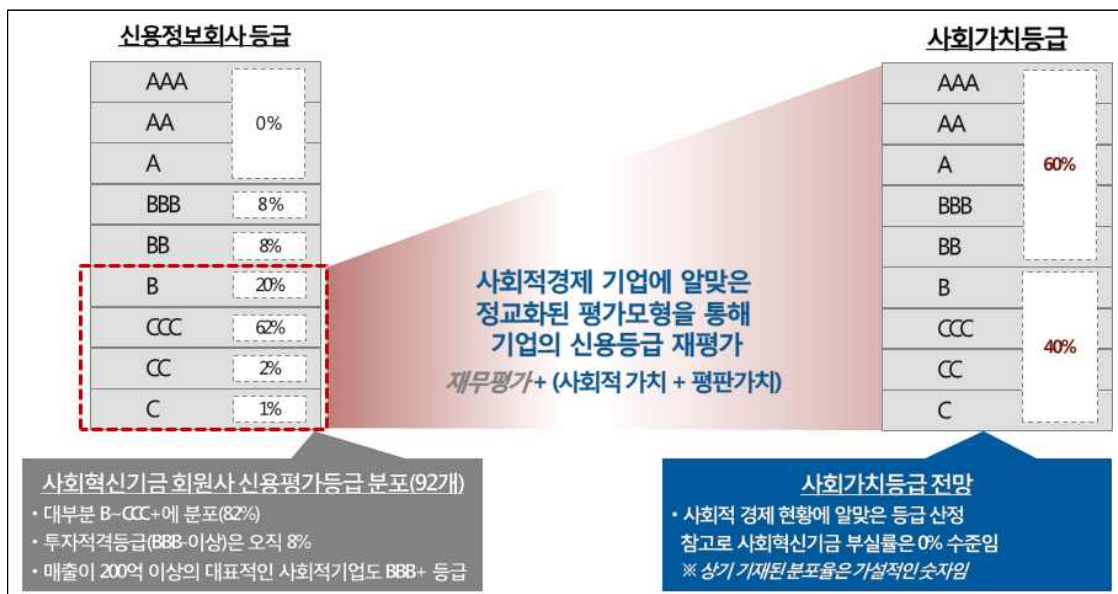


그림 5-9. 새로운 기업평가체계 필요성

- 기존에 사회적경제기업과 관계금융을 충실히 해온 사회적금융기관들이 협업하여 평가시스템을 비롯한 평가체계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간다면,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수 있음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이들의 협업을 지원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사회적금융 기반이 마련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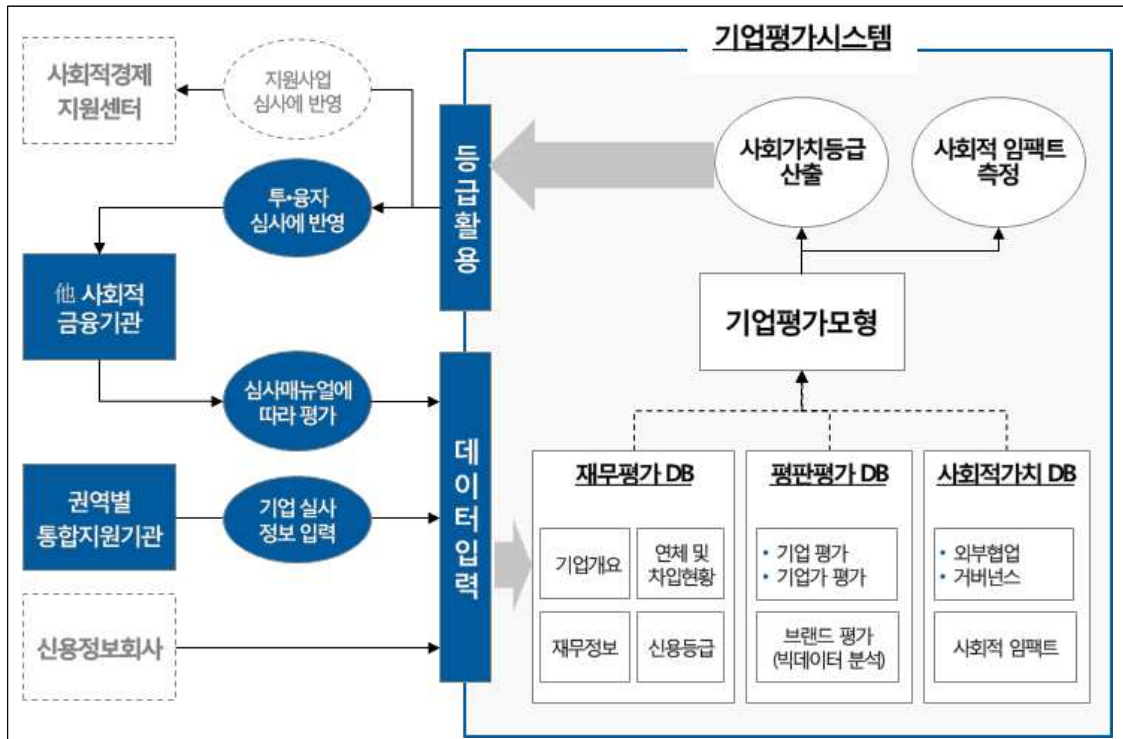


그림 5-10. 기업평가체계 공동연구

○ 서울시 혁신형사업²⁹⁾을 통해 개발되는 기업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민간 사회적 금융기관의 평가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유관 기관들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고자 함

- ① 기업 및 기업가에 대한 통일된 심사매뉴얼을 작성하고, 사회적금융기관의 투·융자 심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의 인증 심사 시 해당 매뉴얼에 따라 평판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 축적
- ② 평가시스템과 기관별 시스템을 연동함으로써 평가를 위한 기업의 기초데이터, 금융 거래 데이터를 공동으로 데이터베이스 化하고, 협력기관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함
- ③ 기업평가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사회가치등급이 실제 사회적금융기관의 투·융자 심사에 반영되어 체계적인 심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가이드 마련 필요
 - 사회가치등급은 법인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금융상품에 따라서는 사업성을 추가로 평가하거나 기금 이용도에 따른 별도의 심사기준을 추가로 고려해야 함

29) 한국사회혁신금융이 2017년 선정되어 2018년까지 사회적경제에 알맞은 평가시스템을 구축 중

2)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과 연계

○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기업의 생애주기별로 적합한 지원방안을 개발하여 시범운영해오고 있음

- 창업기 지원, 동종업종 선배 기업가의 피어컨설팅, 소셜프랜차이즈형 사업지원, 사업연합을 통한 규모화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 개발 및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 중

○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정지원사업 (사업개발비, 혁신형사업 등)지원대상 선정과정에 있어 보다 전문적인 비즈니스 모델 점검을 시도하여,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금융지원과의 연계성을 높여 성장촉진을 유도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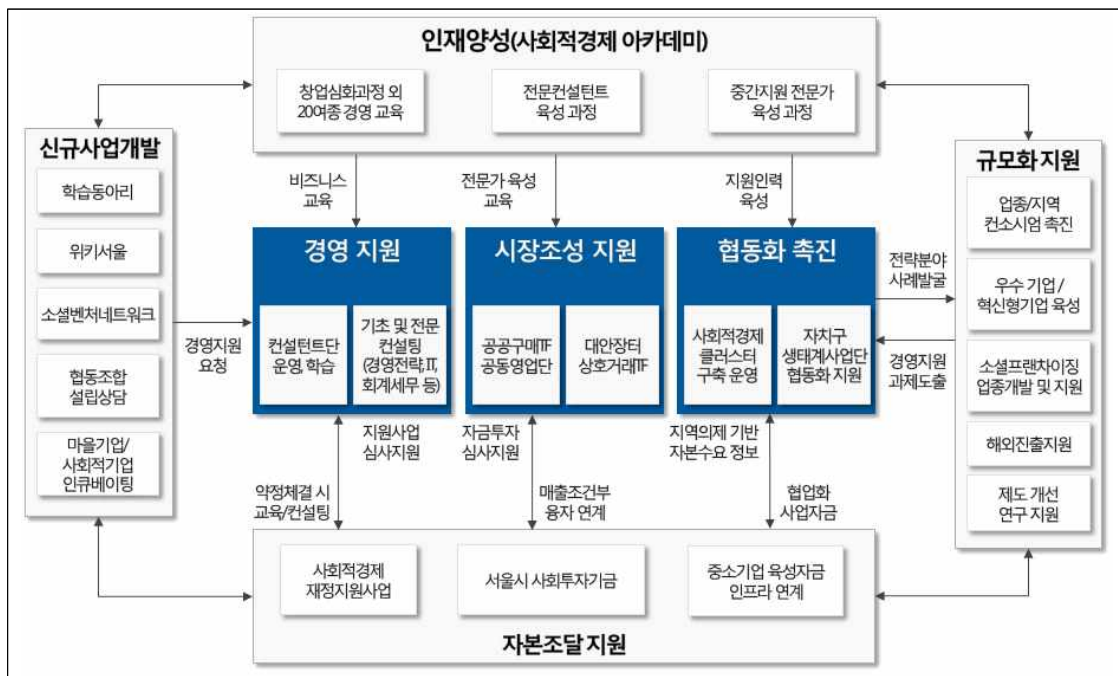


그림 5-11.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 분절적으로 진행되어온 사회적경제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기업평가시스템과 연동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이 보다 유기적으로 순환되고, 투융자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공모지원 사업형태로 별도로 관리되었던 기존의 재정지원사업에 기업의 평가시스템

- 을 적용하여, 매출정보, 사회적가치 등 표준화된 기업 평가 정보를 심사 과정에 반영
- 재정지원사업과 연관된 DB를 구축하여 지원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단계별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 마련
- 지원사업을 기업평가시스템과 연계할 때 사업타당성 분석도 지금의 방식과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단순히 지원기관 중심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거라 기대해 볼 수 있음

○ 평가시스템을 만드는데 있어 기업의 경영공시정보가 중요 기초데이터로 활용되므로 사회가치등급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사업과 연계된다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하여금 경영공시를 통해서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책임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독려할 수 있음

- 사회적경제기업 중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만 의무화 되어 있을 뿐, 그 외 기업들의 경영공시는 선택적 사항임
- 경영공시 범위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경영공시 범위를 준용하도록 하고, 기금 사용에 대한 결산 보고는 별도로 이루어지도록 함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내용은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보고서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사업결과 보고서 등이며,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사이트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음

3) 이익 공유형 융자사업 추진

○ 사회적경제기업은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마련하기까지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인내해 줄 수 있는 자본이 필요함

- 보통주 혹은 메자닌(CB, BW) 형식의 임팩트 투자가 인내자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투자 회수에 대한 적절한 장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투자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임팩트 투자자들이 폭넓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기업을 직접 발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저금리 신용대출로 지원하기 위해서 투융자 복합금융 지원사업인 ‘이익공유형 대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벤치마킹

하여 사회적경제기업과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익공유형 대출사업은 미래성장가치와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와 융자의 장점을 복합 활용하여 저금리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임

-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달성이 예상되는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저금리 대출 후 지원기업의 영업성과에 따라서 추가이자(성과배분)를 수취
(단,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시 성과배분이자 부담 없음)
- 지원 조건
 - 기업 당 연간 20억원 (운전자금 5억원)
 - 5년 이내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 6년
 - 고정이자 : 0.5% (대출기간 중 고정) / 성과배분이자: 영업이익*4.0%
(단,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시 영업이익은 0으로 적용)
 - 대출원금의 20%까지 (고정 및 성과배분 이자의 합계액)
 - 대출일 이후 3년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이자 적용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금융기관이 이익공유형 대출사업을 확대하고, 해당 사업의 운영성과를 통해서 임팩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을 지원함

- 일정수준이상의 사업수익률이 예상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업자금을 대출해줌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함
- 기금을 사용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할수록 사회적경제기금으로 회수되는 운용수익도 커짐
 - 고정이자 0.5% / 성과배당이자 4% 적용 가능

4) 민간기금 육성 지원

○ 한국의 경우 사회적금융 공급자가 정부 및 정책자금, 외부 투자자들에 의해 주로 구성된 반면, 선진국의 경우 자조기금의 형태로 구성된 사례가 많음. 건전한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기금 및 자조기금이 활성화되어야 함

- "자조금"이란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민간이 스스로 조달한 재원을 말하며, 사회적경제조직 연합회 등의 자조기금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개인들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위해 자율적으로 결성한 자활공제협동조합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사회혁신금융이 전국적인 기업공제기금 운영
 - 협동조합연합회에서 공제사업을 하려면 자본금 1억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영세한 협동조합의 경우 자기 필요를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임

- 사회적금융기관과 협업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자조기금을 조성 및 운용하고자 할 때 경영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협동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
 - 기금운용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
 - 융자를 위한 심사규정 및 지침, 필요서류 등 제정
 - 위탁재산의 투자목적·전략에 부합되는 투자대상선정
 - 적용이율, 대출기간, 보증 및 담보여부 등 대출조건 결정
 - 거치기간, 상환방식(분할상환, 일시상환) 등에 대한 상환조건 결정
 - 연체관리, 대손상각 등에 대한 채권관리방안 결정
 - 재무진단 및 분석서비스 제공

- 사회적금융기관과 협업하여 협동기금에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매칭시켜 사회적자본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선정심사³⁰⁾
 - 재무구조(35) : 건전성, 사업기금, 수익성, 성장성, 매칭비율
 - 사업수행능력(20) : 조직의 적정운영, 전문인력 배치, 이해관계자 협력 유사사업 업력 및 수행실적
 - 사업수행계획(45) : 사회적가치 창출,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세부계획 타당성, 재융자 금융상품 적합성, 재융자대상 선정 및 관리, 재융자금 회수 및 상환

- 사회적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출내역, 자금입출금, 상환일자 관리 등 거래정보를 관리하고, 연체건수와 같은 위험관리 정보를 분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제공
 - 대출내역 : 상품설정, 대출금, 상환방식, 상환일정, 이자수익, 만기일
 - 운용현황 : 기금별/기업별 입출금 내역, 잔액

30)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2017년 하반기 융자수행기관 공모계획 공고문(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1943호)

참고문헌

- 경기도. 2017. 「2018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
- 경기신용보증재단. 2016. “사회적경제 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사회적금융 국제컨퍼런스 토론자료.
- 고용노동부. 2017. 「'18년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운용 계획」
- 구정한 외. 2015, 『국내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와 효과분석』, 한국금융연구원
- 금융위원회. 2017. 「사회적금융 활성화 추진방향」
- 금융위원회. 2017a,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방향” 기자간담회 자료
- 김양우 외. 2016. 『서울사회적경제 연구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자금수요조사 및 정책자금 평가연구』. 한국사회투자.
- 사회적경제과. 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사회투자지원재단. 2017. 「경기도 자활기금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서」
- 서울 성북구. 2016. 「2016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운영매뉴얼」
- 서울 성북구. 2017. 「제9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면심의자료」
- 서울연구원. 2017, 『서울시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서울특별시. 2013. 「사회투자기금 추진현황 및 2014년 사업계획(안)」
- 서울특별시. 2013. 「사회투자기금」. 2013년 정책자료집
- 서울특별시. 2015. 「2015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사업계획」
- 서울특별시. 2016.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개편방향」
- 서울특별시. 2017.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 계획」
- 신협중앙회. 2017. 「신협의 사회적금융 추진 방안」
- 신용보증기금. 2017.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 연태훈. 2017, “임팩트 투자와 정부의 역할”, 금융브리프 26권 24호, 금융연구원
- 이상진. 2017, “민간기금 현황 및 기업평가시스템으로 발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금융 확충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기획재정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이순호. 2017, “은행의 ‘생산적 금융’역할 제공방안”, 금융브리프 26권 21호, 금융연구원
- 이인우. 2016.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 수립방안과 따복공동체 부동산자산화 사회적금융 사업모형 기초연구』. 사회적경제지역화연구소.
- 이인우. 2016.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업 협동화 사업모델 조사발굴 결과보고서』. 사회적경제지역화연구소.
- 이재복. 2017, “최근 기업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Weekly KDB Report, KDB
- 일자리위원회. 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2016.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성과평가” 사회적금융 국제컨퍼런스 토론자료.
-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2016.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운용모델 공동연구 보고서」

조달호 외. 2017. 「서울시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기획재정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금융 확충 방안”
 한국사회투자, 2017,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성과평가”, 한국사회투자 내부자료.
 _____, 2017b,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보도참고자료

이유미, 연합뉴스, “‘일자리 많이 만든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3.7조원 우선 지원한다’”, 2017.12.26.,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7/12/26/0301000000AKR20171226064100030.HTML?template=2087>
 이고은, 뉴스핌, “[일자리 로드맵] 사회적기업 '봄' 목표…5000억 보증·대출목표 2배↑”, 2017.10.18.,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1018000188>
 박용준, 뉴스토마토,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으로 '임팩트 투자'한다”, 2017.12.25.,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96714>
 김관일, KNS뉴스통신, “사회연대은행, KT&G 언더독스와 손잡고 청년창업 지원 나서”, 2017.09.05.,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9702>
 홍석호, 국민일보, “‘임팩트 투자’ 착하네”, 2017.05.3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56951&code=11151100&cp=nv>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 주간동아, “소셜벤처와 임팩트 투자 | 기업의 언어로 세상을 바꾼다”,
 2017.01.11.,
<http://weekly.donga.com/3/all/11/821379/1>
 이승윤, 매일경제, “‘연내 300억 규모 사회투자펀드 조성’…새 정부 첫 금융발전심의회”, 2017.11.13.,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752211>

참고 사이트.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https://www.gcgf.or.kr>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 <http://g-money.gg.go.kr>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성북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ngbuk.go.kr>
 화성시청 홈페이지 <http://www.hscity.go.kr>
 신나는조합 홈페이지 : <http://joyfulunion.or.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http://www.socialenterprise.or.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한국사회혁신금융 홈페이지 : <http://ksifinance.com>

별첨

2017 광진협동기금 운용업무 위탁계약서

광진협동기금 운용업무 위탁계약서

자산운용업무의 위탁자인 사회적협동조합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와 자산운용업무의 수탁자인 한국사회혁신금융(주)(이하 "운용기관"이라 한다)는 "위탁기관"의 재산(이하 "위탁재산"이라 한다)의 운용업무를 "운용기관"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자산운용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위탁기관”이 “운용기관”에게 위탁재산의 운용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업무) ① "위탁기관"은 위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일반적인 투자전략 및 투자지침 등을 "운용기관"과 협의 또는 지시할 수 있다.

② "운용기관"은 본 계약에 의하여 위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탁재산의 투자목적·전략에 부합되는 투자대상선정
2. 적용이율, 대출기간, 보증 및 담보여부 등 대출조건 결정
3. 거치기간, 상환방식(분할상환, 일시상환) 등에 대한 상환조건 결정
4. 연체관리, 대손상각 등에 대한 채권관리방안 결정
5. 재무분석 등 경영자문을 통한 비재무서비스 제공
6. 기타 상기 각 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이 “운용기관”의 별도 협의한 운영계획에 따르되, 운영계획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운용기관”의 운용규정을 준용한다.

④ “운용기관”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법규 및 본 계약의 준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신의성실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

여야 한다.

⑤ "위탁기관"은 "운용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운용기관"의 위탁재산과 관련한 제반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

제3조(변동사항 등의 통보) ①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하
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운용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용기관"은 "위
탁기관"으로부터 변동사항을 통보 받는 즉시 이에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위탁기관"의 위탁재산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2. 기타 "위탁기관"의 회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탁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결의한 경우

제4조(보수) ① 위탁재산의 운용에 대한 보수(이하 "운용보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익영업일에 "위탁기관"의 지시 및 관련수탁회사의 조치에 따라
"운용기관"에게 지급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본 계약의 종료

② "위탁기관"이 "운용기관"에게 지급하는 운용보수는 구성된 기금의 연평균 금액
의 일정비율을 월할 계산한다.

③ "위탁기관"과 "운용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운용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제14조의 시행일로부터 "위탁기관"이 본
기금을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중에 "위탁기관" 또는 "운용기관"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원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해지의 의사를 접수한 "위탁
기관" 또는 "운용기관"은 동 계약해지의 의사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운용기관"은 제2항의 계약해지
의사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내에 후임 수탁업자에게 "운용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
련한 모든 자료(업무 수행상 취득한 각종 정보, 분석자료, 기록 및 기타자료 포함)

를 인계하여 후임 수탁업자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① 본 계약의 내용이 법령, 기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그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을 경우, "위탁기관"과 "운용기관"은 제5조의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양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상대방 및 관련수탁회사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관"과 "운용기관"이 계약의 변경에 관하여 합의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7조(보고 등) ① "운용기관"은 "위탁기관"에게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용보고서를 제공한다.

② "운용기관"은 "위탁기관"이 관계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하거나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손익의 귀속) 위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운용기관"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위탁기관"에게 계상되고 "위탁기관"에게 귀속된다.

제9조(책임과 면책) ① "운용기관"이 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법규, 본 계약내용의 준수위반 및 업무해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기관" 또는 관련수탁회사에게 손해를 발생시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운용기관"은 그 손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운용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에 의해 "운용기관"이 행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없다.

제10조(장부와 기록) "운용기관"은 본 계약에 의한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탁재산 운용과 관련된 장부와 기록을 5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관련법규 및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의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위탁재산의 운용과 관련된 비밀사항을 제삼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시 및 통보 방식) ① "위탁기관"과 "운용기관"은 각각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발송하는 지시서 또는 통보서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정의 승인권자의 서명 혹은 인감에 의한 지시서 또는 통보서
2. 우편, 전자메일, 팩스전문
3. 기타 전자전송에 의한 문서

② 제1항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접수·도달 시점을 효력발생시기로 본다.

제13조(관련법규 등의 준용)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조건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법규 또는 일반 상관습에 따른다.

제14조(시행일) 이 계약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위탁기관"과 "운용기관"은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서로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로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3월 21일